



<b>코스피</b> 2447.76 (+8.80)	<b>코스닥</b> 877.44 (-5.78)
<b>금리</b> (연평균) 2.21 (+0.02)	<b>환율</b> (원/달러) 1071.90 (-3.10) (4일)



**[종합]**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저축 않고 은행에 돈 파킹  
03

# 韓進 사라진 북미항로, 외국선사가 대체... 3조 허공에

〈해운〉

〈운임수입〉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 협력·노동자 보호 확대”

### 한·필리핀 정상회담

한·필리핀 정상이 필리핀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발전소, LNG 터미널, 공항 등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있는 필리핀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1949년 수교한 한국과 필리핀은 내년에 '수교 90

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4일 청와대 대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가 '전통 우방국'임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국가 정상이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이어 2번째다. /김승호 기자 bada@

### 한진해운 파산 1년여 해운업계의 현주소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적해운사들이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2017년 한진해운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후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현대상선을 통한 한진해운 자산 흡수를 자신했지만 반등의 실마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몸집키운 글로벌 해운사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선사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2016년 당시 해운 전문가들은 '한진해운 규모의 해운선사를 다시 만들려면 적어도 70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다.

글로벌 시장 7위였던 한진해운의 파산은 해운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충격과 후유증을 불러오고 있다.

우선 글로벌 해운산업은 합종연횡을 끝내고 얼라이언스를 재편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현재 글로벌 해운시장은 선사 '대형화'와 시장 '과점' 가속화가 이뤄지는 추세다. 얼라이언스는 4개에서 3개로 재편되며 시장 과점을 부추기고 있다.

대형선사간 인수·합병(M&A)으로 인해 2014년 기준 글로벌 선사는 20개에서 11개로 정리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규모가 축소된 한국 선사의 영업환경은 녹록치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 韓 선사 글로벌 입지 축소 해운업·경제 전반 후유증

### 국내정기선사 수입 감소로 유럽항로 추가운임도 올라

### 경쟁력확보 나선 현대상선 외형 확장보다 내실 다져야

MI)에 따르면 한진해운 물동량을 대부분 외국 선사가 흡수하면서 국내 운임 수입 3조원 가량이 증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정기선사의 수입 감소로, 국내 화주들이 미국과 유럽 항로에서 추가운임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글로벌 해운사들의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현대상선의 1만 TEU급 선박이 철수하며 유럽 항로의 추가운임 상승이 커지고 있다.

#### ◆북미항로 지배력 '흔들'

국적해운사가 강자로 군림하던 북미항로의 운송 지배력도 반토막이 났다. 미국 경제가 가파르게 회복하며 글로벌 물동량을 늘리고 있지만 중국과 유럽·일본선사들이 공룡화하며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현대상선의 북미

항로 점유율은 5.47%로 나타났다. 한진해운이 생존했던 2015년 양대 국적선사의 북미항로 점유율은 11%에 달했다. 하지만 한진해운 파산 이후 지난해 상반기 현대상선의 북미항로 점유율은 절반으로 추락했다. 한진해운과 함께 사라진 점유율 7% 가운데 현대상선(2016년 4.7%)은 약 0.8% 포인트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한진해운의 남은 북미항로 6%는 글로벌 대형선사들이 나눠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코스코는 점유율이 2016년 8.6%에서 지난해 10.2%로 뛰었고 프랑스 CMA CGM(합병 기준·1.4%포인트), 홍콩 OOCL(1.1%포인트), 일본 MOL과 NYK(각 0.5%포인트), 스위스 MSC(0.4%포인트) 등은 상승했다.

현대상선은 최근 국내 조선사에 대형 컨테이너선과 친환경 선박 등을 발주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선사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글로벌 선사들의 초대형 선박들이 오는 2020년까지 인도되고, 이 선박들이 유럽과 미주 항로에 배치되면 운임 경쟁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일본

3개 선사를 합친 '원(ONE)'을 출범시키면 국내 선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해운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을 높이는 건 결국 영업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단순히 운항선박을 대형화한다고 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화주가 선사를 선택할 때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선택한다"며 "미국의 경우 나라가 넓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물건을 싣는 게 아니라 내륙에서 항구까지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외형보다는 내실 다져야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 현대상선은 최근 외형 넓히기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상선의 규모가 외형보다 작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국내 조선 '빅3'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3조원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과 친환경 선박 총 20척을 발주했다.

하지만 이는 현대상선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해운 업계 관계자는 "하루 아침에 규모를 키워 미주 노선에 배를 투입한다고 해서 능력을 인정받게 아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선박 확충보다는 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0만 TEU 회사가 배를 키워 70만 TEU로 늘려도 영업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단순 선박 증가는 부실 규모만 키우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성근 기자 ysw@metroseoul.co.kr

##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내달 23일부터 DSR 도입

다음달 23일부터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관련기사 6면>

은행권이 지난 3월 가장 먼저 엄격한 대출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제2금융권도 순차적으로 대출 조이기 불가피해졌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오는 8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내달 23일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산출해 적용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적용하지만 농·어민 정책

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산정 방식은 신(新)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같지만 소득 확인이 쉽지 않은 농·어업인들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 조합과 금고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먼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해 해당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RTI는 주택이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현대로템, 대만서 역대 최대 1조 규모 전동차 수주

### 19년 만에 대만시장 재진출 교외선 전동차 520량 납품 창원공장서 전량 생산 예정

현대로템이 대만 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철도차량 사업을 수주하며 19년 만에 대만 시장에 재진출했다. 수주 규모는 1조원 대다.

현대로템은 대만 철도청(TRA)에서 발주한 9098억 원 규모의 교외선 전동차 520량 납품 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대만 시장에서 발주된 철도차량 사업 중 역대 최대규모다. 이번엔 현대로템이 수주한 전동차는 대만 전역에 배치돼 운행될 예정이며 520량 전량 창원공장서 생산돼 2024년까지 모두 납



현대로템이 수주한 대만 철도청 교외선 전동차 실외 조감도.

품된다.

이번 수주로 현대로템은 지난 1999년 수주한 철도청 전동차 56량에 이어 19년 만에 대만 철도시장에 다시 진출하게 됐다. 대만은 최근 노후 철도 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8년간 약 35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

을 발표하는 등 성장기 기대되는 시장이며 이번 사업은 이러한 투자 계획의 첫 사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대만 시장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과 일본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현대로템의 사업 수주가 상당히 어려웠던

곳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19년간 대만 시장 진출을 위해 2011년 대중시 녹선 경전철 E&M 38량 사업, 2015년 신복시 삼영선 경전철 E&M 58량 사업 등 각종 입찰에 참여했으나 매번 유럽과 일본 경쟁사들에게 자리를 내줘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수주전에서 현대로템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고품질 차량을 제안해 대규모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대만 시장에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해 19년 만에 대만 시장 재진출에 성공했다"며 "시행철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전동차를 납품해 추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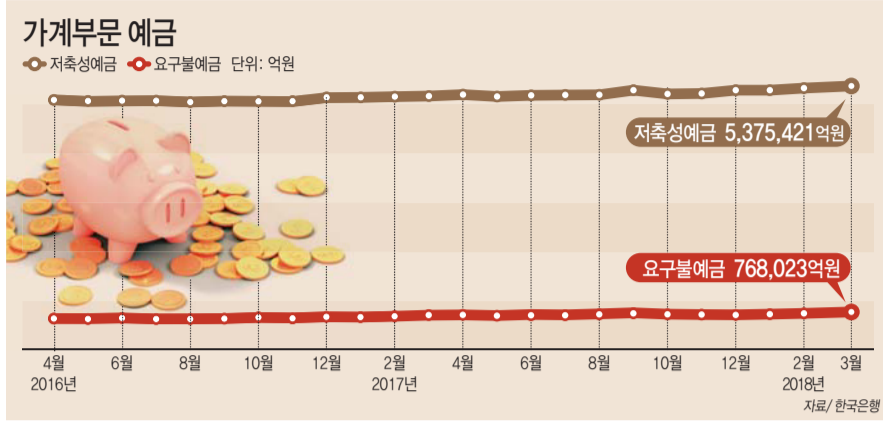
저금리의 역설... 소비·투자 안늘고 돈도 안돈다

# 실질금리 -0.6%... 저축안고 '주차하듯' 은행에 돈 파킹

韓銀, 은행 가계예치 4.6% 늘어  
저축성예금 증가세 제자리걸음  
예·적금 단기화현상 지속될 듯

#. 4년 차 직장인 김철약(34·가명) 씨는 3년간 허리띠를 졸라 매며 5000만원이란 목돈을 손에 쥐었다. 주식이나 파생상품 투자는 복잡한 데다 자칫 원금을 까먹을 수 있어 선뜻 내키지 않았다. 저축성 예금에 넣자니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손해보는 장사 같았다. 부동산 겹투자(전세 끼고 집 매입)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정부가 보유세 도입 등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에 생각을 접었다. 결국 그는 프라이빗뱅크(PB)의 권유로 '수시 입출금 예금'에 잠시 돈을 넣어 두기로 마음먹었다.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0.6%)로 떨어지면서 김씨 처럼 다른 투자 기회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은행 파킹(단기 예금 등에 예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저금리 속에 만기에 따른 금리 격차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자 서민들이 돈을 은행에 오랫동안 묵혀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



날 것이란 기대와 반대로 시중에 돈이 안돈다는 얘기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가계가 예금은행에 돈을 맡긴 총예금액(말잔 기준)은 614조3445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27조1094억원(4.62%)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과거 서민들의 목돈 마련 수단으로 각광 받던 저축성예금은 낮은 금리로 점점 매력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1년간 늘어난 가계 총 예금의 75.73%에 달하는 20조 5306억원이 저축성예금(잔액 537조5421억원)이었다. 저축성예금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600조 원(600조1115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증가세를 보면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이후 올해 3까지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1.07% ↑), 3월(1.17% ↑)을 제외하면 1%대 증가율을 보인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 증가율은 지난 2008년 10월 8.0%로 높아지고 서서히 상승해 2009년 8월과 2010년 7월에 각각 17.3%에 달하는 등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고서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두자릿수 증가율을 대체로 유지했다. 그러나 한은이 2012년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저축성예금 증가율은 바닥에 머물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가 시작되면서 은행에 돈을 넣어놨자 사실상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제금융센터와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이자율(최근 기준금리-예상 인플레이션)은 -0.6%이다. 체코(-0.8%), 헝가리(-1.8%), 필리핀(-0.4%), 폴란드(-1.2%)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은행권 한 PB는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안전자산 선호, 예·적금의 단기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에 일단 넣어두고 보자는 '파킹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3월 말 기준 가계 부문 시중통화량(광의통화·M2)은 1380조3841억원(원계열, 평잔기준)나 됐다. 지난해 말 1350조600억원 보다 30조3240억원 늘어난 것이다. M2는 언제나 원하는대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국내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191조 242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1월 186조1866억원, 2월 190조9208억원) 증가세다.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낮춘 것인데 이렇게 돈 쓰기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

까. 개인의 경우 고용시장에서 '재기'가 힘들어 돈 쓰기가 겁난다. 구조조정의 연쇄 사슬이 작음했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들이 힘들어지면서 고용시장이 불안해지고, 개인은 언제든지 파산의 길로 내몰릴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중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이란 근로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 추가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반영해 계산한 실업률이다. 돈 있는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다.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손실 가능성이 적은 은행에 돈을 맡기더라도 다른 투자 기회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돈을 빼서 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자리를 늘리고, 실직에 따른 재교육, 재사회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해 돈이 돌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이랜드리테일 상장 내년으로 또 연기

뉴코아아울렛 유가증권시장 상장  
"올해는 리츠 상장부터 추진할 것"



이랜드그룹의 핵심 계열사 이랜드리테일의 상장이 올해 상반기에서 내년으로 연기됐다. 대신 뉴코아아울렛 일산점, 평촌점, 아답점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공모리츠(REITs)를 이달 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올해 연말께 예비심사 청구를 신청하고 내년엔 상장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초기에 재무개선에 집중했고, 지난해부터 자본 확충에 나섰다"며 "올해 리츠 상장부터 추진하고 내년엔 이랜드리테일을 상장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장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실적으로 올해 상장보다는 프리 IPO 투자자와 약속한 2019년에 상장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했다고 이랜드그룹 측은 설명했다.

앞서 이랜드리테일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주관을 선정하고, 상장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초 이랜드그룹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랜드리테일 자회사인 이랜드파크 등을 분리하는 기업구조를 개편한 뒤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랜드리테일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16년 '티니위니'를 중국브리그라스에 8770억원에 매각하고 지난해에는 '모던하우스'를 사모투자펀드인 MBK파트너스에 7000억원에 팔았다. 이에 이랜드리테일의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04%로 낮아졌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2조638억원에 영업이익 2340억원을 기록했다. 이랜드리테일의 부채비율도 1분기 기준 168%(지난해 198%)로 줄었다. 이랜드그룹은 이랜드리테일 상장을 늦추는 대신 뉴코아아울렛 3개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한 리츠를 이달 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리츠코크레딧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매장 장기 임차와 리츠 지분 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직접 참여한다. 한편 이랜드그룹은 작년에 약속한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 계획 중 이행하지 못한 5000억원을 올해 조달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에서 조달할 3000억원가량도 다음 달 상황을 앞두고 있다. 이랜드그룹(30개사)은 자산규모가 8조 3000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선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2위에 올랐다. 그룹 내에서 상장사는 이월드뿐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원

## "금융권 채용관행 근본적 개선 필요"

**금감원장, 금융협회장 간담회**  
"고학력자·남성 우대, 떨쳐버려야  
영업관행 지속되면 신뢰회복 어려워"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금융권의 채용관행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대외행보로 6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관행이 다수 드러났고,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권에 새로운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과거에는 채용 과정에서 고학력자와 남성을 우대하거나 임직원 추천제도를 운영하는 행위 등이 개별 회사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두 떨쳐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다. 윤 원장은 금융투자나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에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확산시켜 채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윤리 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고객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키고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부담시키는 영업관행이 지속되는 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윤리와 고객중심의 경영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며 "불안전판매 여부 평가 반영을 포함해 소비자들과 판매자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평가 보상체계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협회들은 지난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했으며, 이달부터 금융회사별 내부규범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1분기 '투자등급' 개별기업 93%

1분기에 '투자등급'을 받은 개별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투자등급' 비중은 93.4%에 달한다. 지난해 말 92.9%보다 증가한 것이다. 반면 투기등급은 2017년 말 7.1%에서 2018년 3월 말 기준 6.6%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AA급과 BBB급이 각각 0.6%포인트 및 0.3%포인트 상승했다. BB급과 B급 이하 비중은 각각 0.2%포

인트 및 0.3%포인트 하락했다. 신용등급이 바뀐 기업은 1개에 불과했다. 전체 유효등급 보유업체 365개사가 가운데 0.3%에 해당한다. 등급도 상향했다. 등급변동은 2016년 1분기 12개업체, 2017년 1분기 4개 업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상향 건수 대비 하향 건수의 비율인 상하향배율(Up/Down Ratio)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1.0배 미만을 유

지했다. 등급이 하락한 업체 수가 상승한 업체 수보다 적다는 의미인 1.0배 미만엔 머물러 등급하향 기초가 지속된 것이다. 상·하향 건수를 총 유효등급수로 나눈 상하향배율 및 하향배율 추이를 투자와 투기등급으로 구분해 2017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투자등급의 상향배율은 0.0%에서 0.3%로 상승하고 하향배율은 0.9%에서 0.0%로 하락했다. /김문호 기자

# AI-블록체인 강자 SDS, “디지털금융 플랫폼 완성”

삼성SDS ‘넥스파이낸스’ 공개  
금융 컨시어지·디지털 페이먼트 등  
첨단IT·혁신기술 사례 접목된 결과

삼성SDS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금융 플랫폼 ‘넥스파이낸스(Nexfinance)’를 공개하고 디지털금융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선다.

홍원표 삼성SDS 대표는 4일 삼성SDS 잠실캠퍼스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미디어데이’를 통해 “수년동안 금융회사 일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플랫폼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권 디지털금융전략팀장, 박재현 디지털플랫폼팀장, 유홍준 금융사업부장(부사장)이 넥스파이낸스의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삼성SDS 디지털금융의 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넥스파이낸스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IPA) 같은 첨단 IT를 적용한 디지털금융 플랫폼이다. 삼성SDS가 검증하고 적용



삼성SDS 금융사업부장 유홍준 부사장이 ‘삼성SDS 디지털금융 사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삼성SDS

한 여러 혁신기술과 사례가 접목된 결과물인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 컨시어지 ▲디지털 아이덴티티 ▲AI 가상비서 ▲보험금 자동청구 ▲디지털페이먼트가 있다.

금융컨시어지는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다. 개인

별 맞춤형으로 완결형의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대화형 AI, 분석형 AI, IPA를 연계했다.

고객이 동의한다면 산재돼 있는 금융 거래 정보들을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모아서 고객에게 통합된 정보로 제공한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

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인공지능 챗봇을 통한 상세한 상담도 가능하다. 고객이 상품 가입을 원하면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입까지 완결형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아이덴티티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객 정보의 안전한 공유·활용 체계를 구성해 통합 본인 인증, 통합 로그인, 전자서명 등을 통한 편리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확대할 수 있다.

이 모델을 확장하면 병원과 같은 의료 서비스, 민원24 같은 공공서비스, 지마켓 같은 생활형 서비스까지 개인을 둘러싼 모든 거래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AI 가상비서와 보험금자동청구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자동화해 고객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금 자동청구 과정을 거치면 지금과 같은 복잡한 단계가 두 단계로 바뀐다. 고객이 보험금을 자동청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접수만 하면 추가적인 서류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제

공된 정보는 암호화돼서 보험사만이 해제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에 활용한다.

디지털 페이먼트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자의 충전, 전환, 적립, 송금, 결제, 출금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타 포인트를 전환하거나, 선물화폐와 연계해서 충전할 수 있으며 친구에게 보내거나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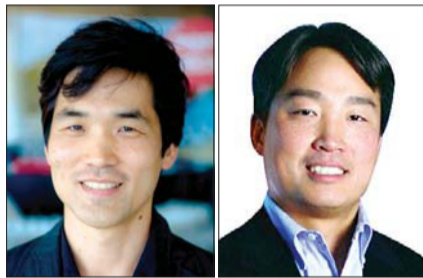
삼성SDS 유홍준 부사장은 “이미 검증된 기술력과 신기술을 접목한 넥스파이낸스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는 금융기관의 고민을 해결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도 모색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삼성SDS는 지난해 삼성카드 블록체인 사용자 인증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 은행연합회 블록체인 공동인증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최근 생명보험협회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구세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AI 권위자’ 세바스찬 승·대니얼 리 영입

삼성전자 역량 강화 위한 인재 확보



세바스찬 승 교수(왼쪽)와 대니얼 리 교수.

삼성전자는 4일 인공지능(AI)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적인 AI 권위자로 알려진 미국 프린스턴대 세바스찬 승 교수와 펜실베이니아대 대니얼 리 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자로 영입된 두 교수는 모두 부사장급으로, 삼성리서치(SR)에서 각각 AI 전략 수립 및 선행연구 자문, 차세대 기계학습 알고리즘·로보틱스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바스찬 승 교수는 뇌 신경공학 기반 AI 분야의 최고 석학 가운데 한 명으로, 미국 하버드대 이론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벨연구소 연구원과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물리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특히 2008년 AI 컴퓨터를 구현하는 토대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 호암재단에서 수여하는 ‘호암상 공학상’을 받기도 했다.

AI 로보틱스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대니얼 리 교수는 MIT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벨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2001년부터 펜실베이니아대 전기공학과

교수로 근무했다. AI 분야 학회인 신경정보처리시스템(NIPS)과 인공지능발전협회(AAAI) 의장이자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의 연구원이다.

두 교수는 1999년 인간의 뇌 신경 작용에 영감을 얻어 인간의 지적 활동을 그대로 모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했고, 관련 논문을 세계적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트 부문 선행연구 조직인 삼성 리서치(SR)를 신설한 데 이어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 5개국에 글로벌 AI 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AI 우수 인재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세운 기자

## LG전자 냉장고, 호주 소비자평가 1위

양문형냉장고 ‘추천제품’ 선정  
고성능·고효율 인정받아

LG전자 냉장고가 호주에서 고성능·고효율을 인정받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호주의 유력 소비자 잡지 ‘초이스’가 LG전자 양문형냉장고에 최고 평가를 내리며 ‘추천제품’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단은 이 제품이 외부 온도가 변해도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또 낮은 소음, 넓은 범위의 온도설정, 식재료의 신선도 등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양문형 부문 소비자평가 2위 제품도 LG전자 냉장고다.

LG전자는 상냉장·하냉동과 프렌치



도어에서도 1년여 동안 소비자 평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양문형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프리미엄 냉장고 전 제품군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

LG전자가 이처럼 냉장고에 차별화된 성능을 구현하며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LG 냉장고의 핵심부품이자 프리미엄 냉장고의 기준으로 자리잡은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덕분이다. 모터가 ‘회전’ 대신 ‘직선’ 운동을 하는 리니어 컴프레서는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적어 일반 인버터 컴프레서보다 효율이 18% 이상 뛰어나고 부품 구조가 단순해 내구성도 유리하다. 또 모터의 속도를 자유자재로 구현하는 인버터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보다 정밀한 온도 제어가 가능해 한 세대 앞선 핵심부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세운 기자



## 쌍용 ‘코란도 C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

안정성·스타일 업그레이드



쌍용자동차가 안전성과 스타일을 강화한 코란도 C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을 새롭게 선보이고 판매에 돌입했다.

4일 쌍용차에 따르면 코란도 C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은 기존 익스트림 에디션에 ▲사이드&커튼에어백 ▲스포티한 디자인의 18인치 블랙 알루미늄 등을 신규 적용했다. 쌍용차는 안전성과 외관 디자인 개선에 주력했다.

새롭게 선보인 베이지 가죽시트 패키지(옵션 적용)는 실내공간감을 확대하고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동급 모델 중 유일하게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검은색 라디에이터 그릴, 고성능 모델

에 사용되는 카본파이버 소재의 아웃사이드미러커버, 스포츠알로이페달, LED 룸램프 등 기존 익스트림 사양들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 전용 레터링도 추가됐다.

추가된 사양과 향상된 상품성에도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의 가격은 2649만원으로 유지했다. 기존 모델 가격은 트림별로 ▲KX 2243만원 ▲RX 2565만원 ▲DX 2814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중형SUV시장 3개월 연속 1만대 돌파  
첨단 안전사양 더한 인스퍼레이션 모델

현대자동차가 국내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의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최고급 모델을 선보인다. 싼타페는 중형 SUV 시장에서 3개월 연속 1만대를 돌파하며 1위자리를 지키고 있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신형 ‘올 뉴 싼타페’의 인기를 잇기 위해 디자인과 첨단 안전사양을 더한 최고급 모델 ‘인스퍼레이션’을 출시한다. 신형 싼타페는 지난 2월 출시된 후 현대차 내수 판매량을 이끌고 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만5581대가 팔려 국내 자동차 시장 베스트셀링카에 이름을 올렸다. 휴일이 많아 다른 달보다 영업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5월에도 1만668대가 팔려 현대차 내수를 책임졌다. 싼타페 덕분에 현대차 1월부터 5월까

지의 국내 실적은 29만4887대를 기록,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싼타페 인기를 이을 인스퍼레이션 모델은 고급스러운 실내,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앞모습은 현대차 특유의 그릴과 범퍼 LED 안개등으로 세련된 모습을 갖췄다. L면부는 듀얼 머플러 등이 적용돼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인다. 실내는 버건디 킴팅 나파 가죽 시트, 스웨이드 내장재를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가졌다.

또 신형 싼타페에 기본 적용된

전방 충돌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이탈방지 보조 등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과 세계 최초로 적용된 안전 하차 보조, 후석 승객 알림,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등이 기본 적용됐다. 가격은 ▲가솔린 2.0 터보가 3580만원 ▲디젤 2.0이 3920만원 ▲디젤 2.2가 411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더 뉴 스파크’ 하루 200대 사전계약

# 한국GM, 부활의 ‘스파크’

지난해 스파크 평균 판매량 돌파  
사전계약 흥행… 내수 부활 시동  
중형 SUV ‘이쿼녹스’도 출격  
“소비자 신뢰회복에 방점”



쉐보레 더 뉴 스파크.

한국GM이 ‘더 뉴 스파크’의 출시를 시작으로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4월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사전 계약을 시작한 한국GM의 더 뉴 스파크는 일 평균 200대 계약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스파크의 일평균 판매량(129대)을 넘어서는 수치다.

올해 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인해 ‘철수설’까지 증폭되면서 내수 판매가 절반가량 감소한 상황에서 스파크의 흥행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의 첫 주자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더 뉴 스파크는 2015년 출시된 ‘더 넥스트 스파크’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이다. 한국GM은 신형 스파크의 상품성을 개선하고 가격 인상 폭은 최소화해 국민경차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목표다.

신형 스파크는 디자인과 안전사양을 대폭 강화했다. 외장 디자인에는 쉐보레의 시그니처인 듀얼 포트 라디에이터 그릴을 넣고 크롬 장식을 적용했다. 공기역학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단부 그릴을 좌우로 확장해 강인한 전면부를 완성시켰다.

시속 60km 이하 저속 주행 시 전방 충돌을 방지해주는 시스템인 ‘저속자동긴급제동시스템’이 새롭게 적용됐고 동급 차종 중에는 유일하게 ‘차선이탈경고시스템’과 ‘사각지대경고시스템’을 탑재했다. 상품성은 개선됐지만 이전 모델 대비 시작 가격은 20만 원 낮아졌고, 트림별 가격도 지난 모델들과 거의 비슷하다. 판매가는 972만~1290만원이다. C-테크 변속기 모델은 트림별로 180만원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한국GM은 스파크에 이어 내수시장을 공략할 또 하나의 야심작으로 중형 SUV 이쿼녹스를 선보인다. 이쿼녹스는 지난해부터 출시가 잠겨졌던 모델로 이미 국내 시장에 기다리는 소비자가 많다.

이쿼녹스는 미국 시장에서 매년 20만 대 이상 팔리는 GM의 스테디 셀러다. SUV 라인업이 부진했던 한국지엠은 이쿼녹스를 통해 성장세인 국내 SUV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이쿼녹스를 전량 수입해 판매한다.

미국 시장에서 2.0L 가솔린 터보, 1.5L 가솔린 터보, 1.6L 디젤 등 세 가지 모델이 판매되는 것과 달리 한국시장에는 디젤 모델만 수입한다.

한국GM 관계자는 “(스파크) 초반 소비자 반응은 좋은 편이지만 사전계약 수치만으로 흥행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차량 판매보다는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국 참여기업과 미얀마 고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미얀마 고효율 콕스토브 보급사업 착수를 환영하고 있다. 우 오 원 미얀마 환경부 장관, 쏘 미앗 마오 만달레이 주지사, 김정수 SK텔레콤 오픈콜라보 기획그룹장(왼쪽 다섯번째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 SKT 친환경 경영, 미얀마로 영토 확장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위해  
콕스토브 5만4000대 보급

SK텔레콤은 4일 미얀마 현지에서 NGO 단체인 기후변화센터, 미얀마 환경부와 협력식을 갖고, 미얀마 환경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콕스토브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콕스토브란 시멘트 소재로 만들어진 난로 형태의 조리도구다. 열효율을 증가시켜 탄소배출량과 나무떨감 사용량을 줄이고, 조리시간을 단축하는데 효과적이다.

미얀마는 독일 민간 환경단체인 저먼위치가 발표한 ‘2016년 기후위험지수’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 2위’로 선정될 만큼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오는 이상기후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얀마 중북부에 위치한 건조 지역은 극심한 대기오염과 사막화 등으로 주민들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협력을 통해 미얀마 건조지역에 5만4000대의 콕스토브를 보급한다. 현지 주민들은 콕

스토브 사용을 통해 조리 시 열효율 증가와 함께 기존에 사용하던 나무떨감 사용량을 줄이게 돼 연간 약 10만 6000톤 상당의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콕스토브 사용으로 하루 6시간 이상 걸리던 조리시간이 4시간 내외로 단축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가사노동 환경 개선은 물론 조리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유엔에서 개발한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청정개발체제(CDM) 모델로 추진된다. 기후변화센터는 사업개발 역할을 맡고 SK텔레콤 및 한국전력, 남동발전, 삼표 등이 투자기업으로 참여한다. 투자비용은 CDM 모델에 따라 감축된 탄소배출량의 일정 부분을 상정, 탄소배출권 형태로 충당된다. CDM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한 온실가스 감축제도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술적·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량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클라우드 제트’로 ‘SaaS’ 서비스 확산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 SK㈜ C&C

인프라·DB 자원 구성 3시간 소요  
서비스 신규 구축·운영 효율성 ↑

SK(주) C&C의 글로벌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제트’가 국내 솔루션 업체들의 서비스용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 확산의 길을 열고 있다.

SK(주) C&C는 4일, 국내 대표 전략경영·제품수명주기관리 솔루션 기업인 ㈜이즈파크가 자사의 성과관리 솔루션인 ‘스트래티지게이트’의 SaaS 상품을 클라우드 제트로 구현·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스트래티지게이트는 100여곳 이상의 공공과 민간기업 시스템에 구축된 국내

의 대표적인 성과관리솔루션비즈게이트 BSC+의 클라우드 버전이다.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전국 산업단지 소속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인 스트래티지게이트 솔루션 사용비용의 7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즈파크는 이번 클라우드 제트 도입을 통해 기존 스트래티지게이트 솔루션 SaaS 서비스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글로벌 지역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인프라 및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구성하는 데 2주가량 소요되는데 클라우드 제트상에서는 3시간 만에 끝나 서비스 신규 구축·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이즈파크는 기존에 사용하던 외산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제트가 제공하는 국산 DB 서비스인 ‘클라우드 제트 디바스’로 교체한다.

클라우드 제트 디바스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인 티맥스의 ‘티베로’ 등 국산 DB솔루션과 어떤 솔루션과도 자유롭게 융합되는 ‘마리아DB’ 등 오픈 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SaaS형태로 제공하는데, 기존 솔루션 이용 대비 약 60%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즈파크는 클라우드 제트 도입과 함께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KT의 모델들이 야외에서도 자유롭게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LTE빔프로젝터를 홍보하고 있다. /KT

## KT “야외서도 끊임없이 영화보세요”

LTE기반 빔프로젝터 출시

KT는 롱텀에볼루션(LTE)기반으로 미디어 스트리밍이 가능한 ‘LTE빔프로젝터’를 오는 11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10일까지 예약가입 프로모션을 연다.

‘LTE 빔 프로젝트’는 LTE 에그 기능을 결합한 미니 빔프로젝터다. 인터넷 연결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수 있고 작은 크기로 캠핑, 소풍 등 야외 활동에 휴대할 수 있다. 또 ‘올레 TV 모바일’ 등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앱)을 큰 화면으로 즐길 수도 있다.

KT는 LTE빔프로젝터 출시를 기념해 신규 가입 고객에게 올레TV모바일 6개월, 프리미엄비빔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올레TV모바일은 tvN, JTBC 등 100여개의 실시간 채널과 18만편의 주문형비디오(VOD)를 제공하며, ‘프리미우

비빔’을 통해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와 국내 유명 영화사의 영화, 해외시리즈, 애니메이션 1만5000편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다.

10일까지 예약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미니빔 전용 삼각대와 40인치 스크린 세트를 증정한다.

더 높은 음질로 콘텐츠를 감상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어폰을 연결할 수도 있다. 이 밖에 본체에 있는 핫스팟 버튼을 빔을 켜지 않고도 무선인터넷을 지원하는 와이파이 기기에도 활용 가능하다.

LTE빔프로젝터의 출고가는 33만원(부가세 포함)으로 KT의 ‘데이터투게더 라지’, ‘스마트디바이스(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다. KT 모바일 고객 중 지난 달 30일 출시된 데이터ON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는 월정액 1만1000원의 데이터투게더 라지 요금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 한강 솔빛섬에 동화·AR 체험존 구축

### LGU+ 어린이 전시체험관 PIM

LG유플러스는 한강 반포지구 솔빛섬에 위치한 어린이 전시체험관 PIM(플레이 인 뮤지엄)에 ‘U+tv 아이들나라’ 및 ‘U+우리집AI’ 서비스 체험존을 구축,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체험존은 비주얼 아티스트 노보(Novo)가 디자인했다.

체험존에 방문한 고객은 베스트셀러와 우수동화 330편을 구연동화 전문 성우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는 ‘책 읽어주는 TV’를 이용해볼 수 있다. 또한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자연관찰학습 콘텐츠인

‘생생자연학습’을 통해 공룡, 동물, 곤충 등 54가지 캐릭터를 3D 그래픽으로 보며 울음소리 듣기, 가상 먹이주기 체험이 가능하다.

‘U+우리집AI’를 통해서도 음악듣기, 날씨 확인, 네이버 검색 기능과 YBM영화동화, 번역 등 외국어 교육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책 읽어주는 TV, 생생자연학습, U+우리집AI 서비스 3종을 모두 체험한 고객에게는 PIM 30분 추가 이용권을 증정한다. 전시공간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주는



어린이 모델이 LG유플러스의 ‘U+tv 아이들나라’ 및 ‘U+우리집AI’ 서비스 체험존을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는 이벤트도 연다.

LG유플러스는 아이들나라 서비스를 체험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PIM 이용권 1매 및 보호자 입장권 1매를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이벤트를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 /김나인 기자

# 저소득층 자금 파이프 라인 막히나... 서민들 '헉헉'

모든 대출에 원리금상환액 반영 상호금융권 내년부터 공식 활용 금리상승 대비 '스트레스 DTI'도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대출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음달 23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는 상호금융의 경우 소득이나 신용도가 높지 않은 서민들이 주 고객이란 점에서 체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 상호금융도 간간한 DSR 적용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제도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던 것과 달리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다. 기존 다른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의 경우 가능한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은행권은 이미 올해 3월 말께 DSR을 도입했고,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 타자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됐다. 다음달 23일 DSR을 시범 도입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한다.

DSR 적용 대상이나 소득산정 방식에서 상호금융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뒀지만 큰 틀에서 간간한 대출심사를 빠져나가긴 힘들다.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DSR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담대 등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 DSR을 산정할 때는 정책자금과 서민금융상품도 부채에 포함되면서 대출문은 크게 좁아진다.

정부는 일단 상호금융권 DSR에 대해 확실적인 규제비용을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합이나 금고가 여신심사 전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리상승에 대비해 상호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DTI'도 도입한다. 약정금리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방법이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넘을 경우 고금리로 취급하거나 80%가 넘지 않도록 대출금액을 줄여야 한다.

### ◆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도 강화

최근 빠르게 늘어난 개인사업자대출도 관리를 강화한다.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개인사업자대출에는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200억원이 넘는 조합과 금고는 업종 편중리스크 통제를 위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업종을 선정해 한도관리를 해야 한다.

LTI는 개인사업자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산해 소득 대비 대출을 평가하는 여신심사 지표다.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입대업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라는 대출규제가 더 추가된다. 앞으로는 연간임대소득이 연간이자비용의 1.25배(주택), 1.5배(비주택)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조합 및 금고 직원에 대한 집중교육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상호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경과〉

- ◆ 17.10.24.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신 DTI 도입, 소금융권 DSR 단계적 도입, 개인사업자대출 현장점검 및 DB 구축(17.12월), 부동산입대업자 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18.3월) 등 계획 발표
- ◆ 17.11.27. 금융위(원),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  
신 DTI 도입, 소금융권 DSR 단계적 도입, 개인사업자대출 현장점검 및 DB 구축(17.12월), 부동산입대업자 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18.3월) 등 계획 발표
- ◆ 18.3.27. 상호금융정책협의회,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계획 발표
- ◆ 18.3.26. 은행권,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 ◆ 18.4.4. 금감원 및 5개 상호금융중앙회, T/F Kick-Off 회의
- ◆ 18.7.23. 상호금융권,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예정)

〈은행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소득인정 범위 비교〉

은행	상호금융
(중빙소득)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좌동
(인정소득) 공공기관 등의 발급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추정된 소득	좌동+α (농·어업인 소득 추정자료 추가)
(신고소득)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된 소득으로 하되,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3천만원 이하 소득 대출 및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최저생계비의 제한적 활용 가능	좌동+α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추정소득 추가)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여름편' 4일 시민들이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여름편'이 내걸린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주변을 걷고 있다. 이번 문안은 채호기 시인의 시 '해질녘'에서 가져왔다. 붉게 노을 지는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름답고 포근한 세상임을 느낀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교보생명

## KB금융그룹-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조성 맞손

KB금융그룹은 4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한국성장금융과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펀드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방안인 'KB 드림스 커밍 프로젝트(Dream's Coming Project)'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KB금융과 한국성장금융은 향후 5년간 200억원씩을 출연, 총 10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조성된 펀드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민간 최초의 사회투자 모펀드 조성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생산적 금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KB 드림스 커밍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과 우리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이동춘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오른쪽)가 4일 '사회투자펀드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신한금융그룹,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 300억 투입... 저신용자 재기 돕는다

신한금융그룹은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그룹사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저소득층의 소득 활동 지원과 중소기업의 성장에 오는 2020년까지 총 2700억원 규모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번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은 지난 1월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재기지원'과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구축' 사업에 이은 두번째 프로젝트이다.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은 ▲교육참여수당 지원 대상자 접수·지원과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운영(신한금융그룹) ▲저신용자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연계(서민금융진흥원) ▲저신용자 채무조정 지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금융 본사에서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부사장(왼쪽 첫번째)과 서민금융진흥원 최건호 부원장(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 안광현 사무국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원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지원(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한금융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해 신용위기와 실직상황에 놓여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동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80

만원 교육참여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저신용자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모두의 꿈이 이뤄지는 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희망사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우리은행 주가지수연동예금 '우리챔프' 판매

우리은행은 오는 19일까지 주가지수연동예금 '우리챔프(Champ)복합예금 18년-9호'를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예금이다.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양방향형, 상승형 2가지 유형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모두 만기 해지시 1.7%의 이자율이 보장되고, 중도해지 할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인해 원금 손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양방향형은 만기 시 주가지수가 기준시점 보다 상승했을 때와 하락한 경우로 나누어져 이자율이 결정된다. 상승한 경우 가입기간 중 매일의 증가가 10%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 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최고 연 3.5%를 지급하고, 10% 초과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만기해지 시 연 1.7% 이자율을 확정해 지급한다.

반대로 만기 시 주가지수가 기준시점 보다 같거나 하락한 경우 가입기간 중 매



일의 증가가 10% 초과해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주가지수 하락률에 따라 최고 연 3.5% 지급하고, 10%를 초과 하락한 적이 있어도 만기해지 시 연 1.7% 이자율을 확정해 지급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SK하이닉스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난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될거야~”

“나는 우주로 갈거야!”

### 우리 생활 곳곳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오늘의 스마트폰에서 미래의 인공지능까지  
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 밖으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당신의 삶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안에서 밖을 만들다



영상이 궁금하다면

총 상금 7억원에 도전하라! SK하이닉스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기관 | 접수기간 | 2018.5.1 - 2018.6.30 |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openidea.skhynix.com)







개성에 남북연락 사무소 설치, 통신·전기 등 곧 연결

# 활짝 열린 ‘개성가는 길’... 공단재개 부푼 꿈

통일부 “15일 이전 현장점검”  
전기공급 문제 ‘풀어야할 과제’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 공단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이 잘 된다면 북한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안될 것이다. 가서 봐야 무슨 판단이라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2016년 2월 전면 폐쇄된 후 개성공단 기업들이 그토록 바라던 ‘개성가는 길’이 조만간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담판’을 벌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 이후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울 장본인으로 한국 등을 지목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해 한 때 125개 남측 기업과 5만 명이 활짝 넘는 북측 근로자들이 일하며 남북경협을 상징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이다시 ‘주연’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준비를 위한 사전점검단의 방북 일정과

관련해 4일 “사전점검단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필요한 공사나 개·보수 사항이 어떤지를 알아볼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해서 아마 임시 공동연락 사무소가 운용되도록 그렇게 남북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년 4개월 동안 텅 비어있던 개성공단에 남북의 공동연락사무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신, 전기가 연결되고 사람이 오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개성공단내 어느 곳에 사무소를 꾸릴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남북고위급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무

소 위치에 대해 “현장을 가봐야 알 것 같다. 거기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몇 개 안 되는데, 어떤 시설은 꽤 오래 사용하지 않은 시설들도 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

사전점검단은 15일 이전에 방북해 개성공단 곳곳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들은 2009년 말 완공된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와 2005~2010년 운영했던 4층짜리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건물 등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폐쇄 직전까지 운영했던 기업들의 공장 내부부 상황도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 가동의 뒷줄 역할을 할 전기 공급 문제도 당장 풀어야 할 과제다.

2년여 전 남측 기업들이 전면 철수하기 전까지 개성공단에서 필요한 전기는 경기도 문산변전소에서 공단 내 평화변전소로 송전하고 이를 다시 끌어쓰는 방식으로 이용했다.

백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전력공급 방안에 대해 “사전점검단이 북측 지역에 가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 어떤 시설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점검될 것”이라고 답했다.

당장 연락사무소에서 필요한 전기를 기존과 같이 끌어다 쓸 경우 개성공단 폐

쇄 후 처음으로 남측의 전기 공급이 재개된다는 상징적 의미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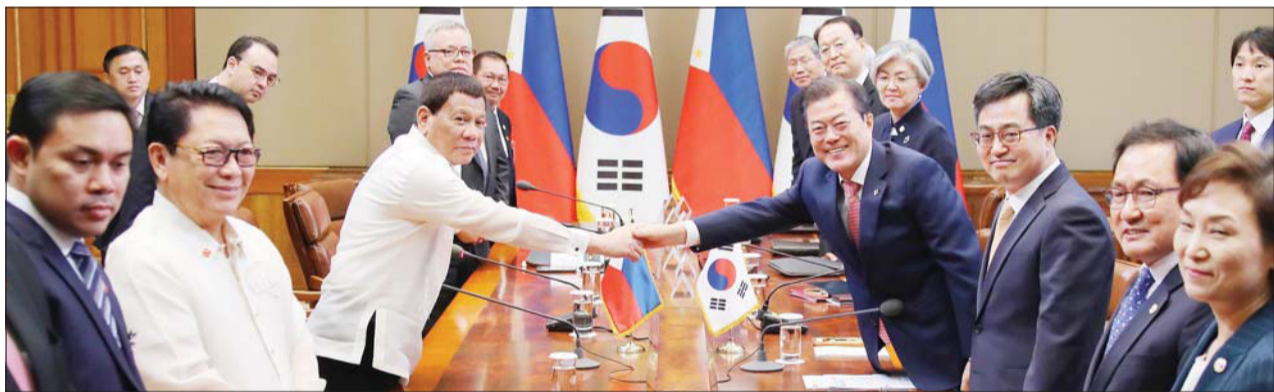
이처럼 상황이 호전되면서 개성공단에 공장을 두고 온 기업인들의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 TF 유창근 단장은 “방북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자연스럽게 풀리고, 이후 나오게 될 정부 지침에 따라 행동하면 될 것 같다”면서 “실제 방북을 해 개성 현지에 있는 공장이나 내부의 시설 등을 둘러본 후에야 (향후 공장 재개를 위한)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재개될 정도로 남북 관계가 호전될 경우 기존의 개성공단 운영 방식을 훌쩍 뛰어넘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는 최근 펴낸 공저 ‘선을 넘어 생각하다’에서 “개성을 경제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면서 남북 정치 체제에서 독립성을 갖는 일종의 ‘통일특구’ 또는 ‘통일특별자치구역’으로 발돋움시키는 방안이 있다”면서 “아울러 개성을 ‘비핵평화지자체’로 선언해 UN 관련 기구를 적극 유치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韓-필리핀, 에너지·농업 협력 확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방한  
文 “자동차 등 제조업 발전 지원”  
교통·경제통상 등 5건 협력 약정

한·필리핀 정상은 4일 청와대에서 소규모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인프라, 에너지, 농업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리핀에 기술을 공유해 자동차, 금형기술 등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자정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필리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 달러로 확대기로 결정한 바 있다.

두 정상은 이를 환영하고 교통·인프라, 에너지, 수자원 관리, ICT·스마트와 같은 4대 중점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과의 연계를 더욱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양국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통, 경제통상,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5건의 협력 약정(MOU)도 체결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적인 상황 전개에 대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이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계속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과 필리핀 정부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두 정상은 양국 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의 과제인 기후변화, 환경,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필리핀 양국은 상호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수교 70주년인 내년을 ‘한·필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은 양국 치안 당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도 약속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엔 두 정상을 포함해 양국의 정계, 재계, 학계, 문화계 인사 등 약 70명이 참석하는 공식만찬도 가졌다.

만찬 공연에선 ‘양국 간의 우정’을 주제로 양국 합작 재즈 연주와 한국의 밀양아리랑, 필리핀의 유명곡 ‘당신(Ikaw)’ 등이 연주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참전하며 우방국임을 달하며 면적은 한반도의 1.3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와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687억 달러, 수입 961억 달러 등 총 1648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김승호 기자

## 文 대통령, 6·13선거 독려 8일 사전투표

임종석 비서실장 등도 참여키로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줄 듯

문재인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6·13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만약에 있을지 모를 남북미정상회담과는 무관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며 “사전투표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비서관과 행정관 등 많은 분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년 4월 재보선 당시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의 첫 사전투표는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사전투표율이 전체투표

율과 대단히 밀접히 관련돼 있는데,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6년 총선 때 12.2%의 사전투표율을 보이면서 2012년 19대 총선 때 54.2%였던 투표율을 58.0%로 끌어올렸다”며 “지난 대선 때에는 사전투표가 26.1%로, 전체투표율을 77.2%로 끌어올렸다. 사전투표율이 전체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선거가 3개가 있는데, 역대 지방선거가 40%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 다른 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래서 사전투표를 통해 전체투표율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고,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전투표가 25%를 넘기면 프리허그 하겠다고 했던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 그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미정상회담과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싱가포르(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6·13 투표 참여하세요”

4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선거독려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상반기 모바일게임 빅매치

넥슨

성인용 표방 카이저 vs 서버 밖 연계 가능

웹젠

넥슨 '카이저'

풀 3D그래픽·1대1 아이템거래 가능

'리니지'와 '검은사막'이 주름잡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 상반기 눈에 띄는 대작이 출격한다. 올 상반기 리니지와 검은사막 모바일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낸 게임이 드문 만큼 이들을 따라잡을 신작이 나올지 업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카이저(KAISER)'와 웹젠의 '뮤 오리진2'이 이날 정면 대결에 나선다. 뮤오리진2는 유명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탄탄한 이용자층을 확보했다면, 카이저는 새로운 IP로 대규모중점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시장에 신선함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사전 예약 120만명을 돌파한 카이저는 이날 사전 오픈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이저는 인기 PC게임 '리니지2'의 개발을 맡았던 채기명 패스파인더에이티브 PD가 주축이 돼 지난 3년간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제작한 게임이다.



넥슨 카이저-LG G7 씽큐 체험존 이미지.



/넥슨 '뮤 오리진2' 대표 이미지.

웹젠 '뮤 오리진2'

서버 밖 게임공간 구현·협력콘텐츠

후속작인 뮤 오리진2는 MMORPG의 특징인 성장과 협력, 대립에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 특히 모바일 MMORPG에서는 처음으로 활동 서버 밖으로 게임 공간을 넓힌 '어비스'를 구현했다. 이용자들은 독립된 공간인 어비스를 왕복해 다른 서버의 이용자와 협력하거나 대결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지난 1월 중국에서 '기적작성'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출시된 뮤 오리진2는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최고 매출 순위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웹젠 관계자는 "지난달 마무리된 뮤 오리진2 비공개테스트의 참가자들은 설문 조사에서 콘텐츠 간의 끊임없는 순환구조와 서버안정성, 사용자환경(UI) 등 게임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높은 점수를 매겼다"며 "3일 기준 사전예약 참가자는 165만명을 넘겼다"고 말했다.

/김남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게임 슬로건은 '세상에 없던 R등급 모바일 MMORPG'다. 부, 명예, 권력을 키워드로 1대1 개인 거래 등 성인만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의미가 담겼다. R등급은 해외에서 18세 이용가 등급을 뜻한다. 어른들을 위한 게임인 셈이다.

'1대1 거래', '장원 쟁탈전' 등의 요소와 풀 3D 그래픽을 모바일에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특히 1대1 아이템 거래 기능은 2000년대 PC 온라인 게임에서 주로 사용된 기술로, 국내에서는 처음 모바일게임

에 도입했다. 온라인 게임 강자인 넥슨은 모바일 게임 최강자로 불리는 넷마블 등과 비교해 눈에 띄는 모바일 게임이 드물었다. 최근에는 '다크어벤저3', '엑스'에 이어 '오버히트' 등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올해 1·4분기 매출 중 넥슨의 모바일게임 비중은 16%에 불과해 신작 흥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같은 날 웹젠이 동시에 출시하는 뮤 오리진2는 2015년 출시된 '뮤 오리진'의 후속작으로, 웹젠의 대표 IP로 꼽힌다. 전

작인 뮤 오리진은 MMORPG 중에 최초로 출시와 함께 애플마켓 매출 및 인기순위 1위에 올라 모바일 MMORPG의 전성기를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해에도 누적 게임 다운로드 650만건을 돌파해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웹젠의 지난 1·4분기 실적을 이끈 것은 '뮤' IP다. 뮤 IP를 활용한 게임 매출액은 43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9%를 차지한다. 웹젠의 경우 신규 성장 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美 금리인상, 신흥국 금융불안 야기”

이주열 한은총재 통화정책 컨퍼런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최근 미국의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통화정책의 역할: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BOK 국제 컨퍼런스에서 “지난 2013년 긴축발작(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 당시 미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신호를 보내면서 신흥시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됐다”며 “향후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이 같은 불안이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긴축발작은 지난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미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를 의미하는 발언을 통해 신흥국 통화 가치 및 주가, 채권 등이 급락한 현상을 일컫는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예견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의결문을 통해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금리 조정 시 1순위 고려요인으로 꼽은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6월 미 금리 결정이 신흥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미 연준이 오는 12~13일(현지시

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6월 위기설’이 대두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흐름이 본격화하면서 이들 국가의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고 통화 가치 급락 등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지난달 들어 21.1% 하락했고 외환보유고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앞두고 있다. 터키 역시 리라화 가치가 지난달 한 달 새 12.6%나 급락했다.

이 총재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가 제로(0) 하한에 도달했을 때 대규모 자산매입이나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인 정책수단들을 동원했는데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금융위기 이후처럼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의 구축효과가 크지 않아 재정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으로 운영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통화정책과 다른 정책과의 조합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봉준 기자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

‘연금사회주의’ 우려 고개

620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최근 시장에서 공개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며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며 ‘홍역’을 겪은 바 있는 국민연금은 올 들어 현대차 합병,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일탈 행위 등에 대해 시장 혼란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내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강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막강해진 영향력을 두고 기업 경영 자율성 훼손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 가까이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의 부재(不在)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4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투자 규모만 무려 131조원(올 1분기 말 기준)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투자 자료에 따르면 5% 이상 지분 보유 국내 기업은 276개사로 전기·전자부터 통신·화학·유통·금융·보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9.5%, SK하이닉스 9.9%, 현대차 8.4%, 네이버 10.8%, LG화학 9.1%, 신한지주 9.6% 등 국민연금은 주요 상장사의 대주주 또는 2대 주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행위와 관련해 경영진 면담을 공개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서 국민연금이 실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 국민연금 “국민 우려 해소 위해 주주권 적극 행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공개

〈국민연금 5% 이상 지분 보유사〉

구분	보유지분
삼성전자	9.5%
SK하이닉스	9.9%
현대차	8.4%
네이버	10.8%
LG화학	9.1%
신한지주	9.6%

/자료=국민연금

서한 발송 및 대표이사과 임원 등의 경영진 면담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의 의결권 찬반 표시, 배당 확대 요구 등 제한적인 참여를 해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자산을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고려해 주주로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주주권 행사를 제안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역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 경영진이 의미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장에선 국민연금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내달 도입을 앞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선제적 움직임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은 국민연금의 공개활동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공개서한 발송, 중점대상회사 지정 및 명단 공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 위임장 대결, 주주대표 소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기업 경영 자율성 훼손… ‘연금사회주의’ 우려”

다만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행보에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의 의사 결정에 일괄 개입에 나설 경우 경영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른바 정부가 기금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연금이 기업을 지배하는 ‘연금사회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사태와 최근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안 등을 보면 국내 기업이 이미 국민연금이 종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하면 기업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국민연금 CIO의 공백 장기화는 국민연금의 현재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지난 4월 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가 3명의 후보를 CIO 후보로 추천받았지만 2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최종 후보자를 낙점하지 못하면서 일부 재공모 가능성 등 뒷말이 나온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보다 면밀한 검증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본부 전주 이전 등으로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된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은행(BOK) 국제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은

www.myhair.co.kr

# 김찬월 연구한 특허가발 착용감이 다릅니다.

접착 · 클립 · 테잎 **NO**

특허 KS가발은 가려움 방지, 탈부착 간편합니다.

정수리 밀지않는  
특허 결속 고정 가발

특수한 재질 사용하여 통풍이 우수하고 매우 경제적입니다.  
(타사가모 고정 가능)

다양한 여성용  
신제품 개발

특수한 기술로 뒷부분이 들뜨지 않는 가발!  
항암가발 50% 특별할인

## 김찬월가모 명가명품 기술입니다.



라클라스 부분가모

남녀 부분가모 작품 전시실



국내최초  
남녀 부분가모  
작품 전시실



30년 기술의 신지식인 김찬월연구가 자랑스런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선정

1995년 10월 3일 MBC 생방송 '아침만들기' 한국 최초 가발관련 방송 출연  
2018년 2월 14일 채널A '김형욱의 굿모닝-알고있나요' 출연

- MBC '화제집중' 출연
- SBS '인생대역전' 출연
- SBS '모닝와이드' 출연
- KBS '뉴스투데이' 출연
- KBS '생로병사의 비밀' 출연

- 압구정점 02-545-4800
- 서울역점 02-717-0046
- 서울시청점 02-747-3500
- 대구범어점 053-744-4343
- 대구7호광장점 053-571-6002
- 인천부평점 032-503-5707
- 부산역점 051-467-1300
- 부산서면점 051-802-2882

대표전화 1544-5554



게임빌

### 게임기획·사업·마케팅 '하계 인턴 공개 채용'

글로벌 모바일 게임사 게임빌은 '써머(SUMMER) 인턴십'을 통해 2018년 하계 인턴을 공개 채용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게임 기획 ▲게임 사업 ▲마케팅 부문으로, 5학기 이상 이수자 및 기졸업자가 지원 가능하다. 온라인 서류 접수 기간은 10일까지다. 서류 전형에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채용 홈페이지, 카카오톡 친구 찾기 '게임빌채용'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와의 소통을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이번 '써머 인턴십'을 통해 참여자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임 산업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의미있는 기회를 얻고, 게임빌은 세계 무대에서 동반 성장할 차세대 인재들을 확보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이정용 새안 대표(가운데)와 강성태 글로벌코너스톤 그룹 회장(오른쪽)이 지난 달 29일 말레이시아 자동차회사 '고오토'를 방문해 완 아흐마드 완 이말 고오토 총괄책임자(전우이사)에게 생산라인 구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새안

### 토종 전기자동차기업 새안 말레이시아 본격 진출

말레이 기업 고오토와 사업협약

국내 전기자동차기업 새안이 말레이시아 정부 측과 전기자동차 관련 최종합의를 마치고 말레이시아 기업 '고오토'(GO AUTO)와 함께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정용 새안 대표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 말레이시아 국제무역부 산하 자동차연구소(MAI)와 전기차 사업에 관한 협력방안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최종 합의를 했다.

이에 새안은 말레이시아 고오토와 함께 연구개발(R&D)을 통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를 개발하기로 했다. 새안의 1차 벤더사인 배터리 전문업체 2B4G도 지난달 29일 '고오토'와 사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정용 대표는 "향후 MAI 이사단의 방한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 최종계약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안 측은 "한국 전기차 기술 이전에 힘을 쏟아온 말레이시아 현지 경제위원회(MPM)가 신임수상의 우선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어 전기차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안은 이달 중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미국 나스닥을 관장하는 전미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시장 거래 시장 OT CBB 시장에 기술우회상장을 추진한다. 새안이 OTCBB로 등록되면 한국 내 새안은 미국의 한국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새안은 6월 중 일본에 '새안재팬'을 설립하고 일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 친환경·대북경협 '두토끼' 잡는다

## 시멘트업계

쌍용양회 폐열발전설비 도입  
제조원가 절감·온실가스 감축  
기대감 타고 상장사 주가 뿔뿔

시멘트업계가 '친환경'과 '대북경협'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시멘트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먼지와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는 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숙제였다. 또 경제성 등 시멘트 제품 속성상 해외 수출이 쉽지 않아 시장이 제한적인 탓에 돌과구마련도 절실했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친환경 노력과 더불어 남북 화해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시멘트업계의 체증이 뺨 뚫리는 분위기다.

4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쌍용양회는 연간 전력비만 1000억원 가량이 드는 강원도 동해공장에 ESS(에너지 저장장치)와 폐열발전설비를 각각 구축했다.

ESS는 전력단가가 낮은 밤 시간대에 전기를 충전한 뒤 전력단가가 높은 시간대에 방전해 공장을 가동, 전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비로 꼽힌다. 시멘트는 생산설비의 핵



쌍용양회 동해공장에 들어선 폐열발전설비.

심인 킬른(Kiln·소성로)에서 클링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약 1450℃에 달하는 고온의 열을 사용한다. 폐열발전설비란 소성공정을 거친 후 평균 350℃까지 떨어진 열원 대부분을 대기에 배출하지 않고 이를 회수해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를 말한다.

공장 가동을 위해 보다 저렴한 전기를 쓰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생산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동해공장에 설치한 것이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추대영 공장장은 "폐열발전설비는 6월 현재 전체 공정률의 80%를 넘어섰고, 7월 중순 첫 시험가동에 이어 8월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면 ESS와 함께 공장에서 쓰는 전체 전력비의 30% 가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조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1조333억원 매출로 업계 2위인 쌍용양회는 43MWh(연간 2억 8100만kWh) 규모의 폐열발전설비를 위해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22MWh 규모의 ESS설비는 국내에서 가장 크다.

쌍용양회 외에 성신양회(29.5MWh), 한일시멘트(25MWh), 삼표시멘트(19.7MWh) 등도 폐열발전을 갖추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실제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후 관련 거래금액은 5월 말 현재 톤(t)당 2만6000원까지 육박하며 시멘트업계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시멘트 생산량 기준 1t당 1000원씩 부과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500억원의 세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대기배출 부과금 신설 관련 입법도 예고되는 등 원가절감을 통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존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남북 관계가 '절호의 기회'다.

그동안 시멘트업계 내부에선 바라볼 곳이 '북한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었다. 국내 건설시장의 경우 주택, SOC 등이 포화 상태라 먹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 시멘트회사들이 외국계나 사모펀드(PEF)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며 몇 년이 멀다하고 주인이 바뀌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같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시멘트 상장사들 주가도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을 전후해 최근까지 급등했다.

4월 2일 대비 6월 1일 현재 주가는 현대시멘트가 1만4550원에서 7만6800원으로 5배 가량 급등한 가운데 성신양회(5490→1만5650원), 쌍용양회(2만3700→3만3000원), 삼표시멘트(3410→6560원) 등이 모두 가파르게 올랐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쌍용양회 동해공장 정경

## 네이처리퍼블릭, 중동 女心 유혹... 사우디 1호점 오픈

'K-뷰티 기획의 땅' 중동 본격 공략  
수도 리야드 중심 쇼핑몰에 입점  
'연내 5호점 입점 계약 확정'

네이처리퍼블릭이 중동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섰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중심 번화가에 위치한 최대 규모 쇼핑몰에 1호점을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은 18번째 진출국으로 'K-뷰티 기획의 땅'으로 떠오르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했다. 중동은 화장품 시장 규모가 2020년 360억달러(약 42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최대 뷰티 시장으로 연평균 약 1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사우디아라비아

가 중동 국가 중 니잡(눈만 빼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 착용률이 가장 높을 정도로 보수적인 만큼 2년여 간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쳤다. 시장조사는 물론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사우디식약청(SFDA)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분에 대한 유해성 등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 베라 92% 수딩젤'과 '진생 로얄 실크 워터 크림'을 포함한 650여 품목에 대해 화장품 전자 통신 시스템인 eCosma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현지 최대 유통 그룹인 파와즈 알호카이르(Fawaz Alhokair)와 파트너사 계약을 체결하며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 그룹은 입점 브랜드의 선별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네이처리퍼블릭의 확고한 자연주의 콘셉트와 뛰어난 제품력을 높이 평가해 라마단 기간임에도 1호점 오픈을 서둘렀다는 후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1호점은 알호카이르 그룹의 쇼핑센터 중 최대 규모로 현지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갖춘 알 나크힐몰에 입점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뛰어난 제품력과 매장 인테리어 및 브랜드명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자연의 가치가 현지 고객들에게 큰 호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오픈 당일 파트너사와 5호점까지 입점 계약을 확정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올해 초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성공적인 안착을 시작으로 중동 시장까지 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1호점 오픈을 필두로 연내 대도시 중심의 대형 쇼핑몰에 5호점까지 선보일 예정이며 추후 소비 경쟁력이 있는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네이처리퍼블릭 사우디아라비아 1호점

/네이처리퍼블릭

# 한·중·일·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머리 맞댄다

## 4개국 해양쓰레기 관리 워크숍

한중일 환경분야 최고위급 회의  
어업 쓰레기 감소 성과 등 공유  
해운대 해변서 정화활동도 실시

최근 해양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러 4개국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까지 부산 호메르스 호텔에서 '2018년 NOWPAP-TEMM 해양쓰레기 관리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 4개국의 해양쓰레기 관련 정부기관 대표와 연구기관, 관련 NGO 등 내·외국인 60여 명이 참석한다.

NOWPAP(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은 유엔환경계획이 연안 및 해양자원의



지난 5월 27일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에서 바다의 날을 맞아 한국해양구조단 여수구조대가 모두모아 봉사대 등과 함께 해양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추진해온 지역협력프로그램이다.

TEMM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로 동북아 환경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1099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이 교대로 개최하는 환경분야 최고위

급 회의이다.

이번 워크숍은 북서태평양 지역 국가가 함께 연안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관리를 논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의

해양쓰레기 관련 실무자 회의와 연계해 열리고 있다.

첫 날인 4일에는 한·중·일·러 각국의 해양쓰레기 관리현황과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어업·양식업에서 발생하는 해안쓰레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현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2008년부터 실시해 온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고,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시행 등 저감정책을 통해 어업·양식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감소한 성과 등을 참가국들과 공유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해양쓰레기 정화주간(5월 28일~6월 5일)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워크숍 참석자, 학생, NGO 등이 참여하는 연안정화활동을 해운대 해변 미포선착장 인근에서 실시한다. 정화활동 시 물통(텀블러)을 배포해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안정화활동 이후 5일 저녁부터 6일 오전까지는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해양쓰레기 지역협력계획(RAP MALL: Regional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연락관 회의가 진행되며, NOWPAP 사무국 및 지역활동센터의 현황보고, '해양쓰레기 지구 파트너십' 발전계획 이행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장묘인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특성상 해양쓰레기 문제는 각국의 적극적인 관리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동 워크숍은 북서태평양 지역의 국가 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크숍은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과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등이 주최하고, 부산시가 후원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정책브리핑

# 산업부, 국가클러스터 육성사업 본격 추진

## 시·도별 자체설계 청사진 제시

## 지역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진행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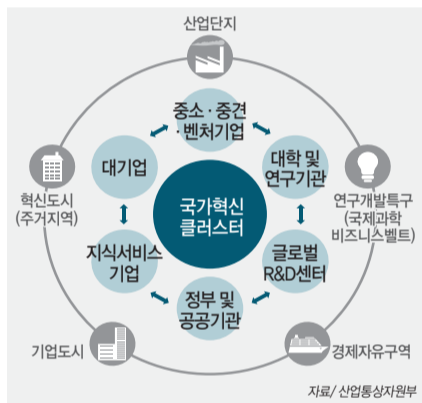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공적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4일부터 5일까지 대전 선사인호텔에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올해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14개 시·도별로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변의 산단, 대학 등과 공간적 연계를 통해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대대위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20일 국가균

## <국가혁신 클러스터 개념도>



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14개 시·도는 공간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혁신클러스터 지정 가능 지구와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 등 지역에서 자체 설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정책·입지·투자·연구개발(R

&D) 등 분야별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산업단지, 지역대학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을 연계·활용하는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도는 이번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이후 2차, 3차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수도권 못지않은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나침반이 되는 세부 계획을 준비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지역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고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 농식품부, 韓-필리핀 농업협력 확대 MOU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필리핀 농업부 엠마누엘 피놀(Emmanuel Pinol) 장관과 양국간 농업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농업부가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 전문가 교류, 농업기술 개발 협력, 민간-공공부문의 교류 증진 등 다양한 농업분야에서 상호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추진해온 필리핀 KOPIA센터와 농식품부의 농업 협력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한국이 우수한 농업 기술을 전수할 것에 대한 필리핀 측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며 "이번 MOU를 바탕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왼쪽)과 엠마누엘 피놀 필리핀 농업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필리핀 농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설치되는 한-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가 양국간 정례적인 교류와 협력 채널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해수부, 국제인증 취득사업 47개업체 선정

해양수산부는 2018년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 대상 업체 선정 결과를 5일 발표한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물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4일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에는 89개 수산물 수출업체가 신청하는 등 관련 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 인증(ASC, MSC-COC 등), 친환경 인증(USDA-NOP, Organic EU 등), 품질규격 인증(FSSC22000, SQF 등), 할랄인증, 코셔인증 등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인증을 중심으로 최종

47개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 업체에는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과 인증 소요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고비용과 높은 기준으로 취득이 어려웠던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인증'을 지원하게 돼 빠르면 연내에 국내 1호 ASC 인증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앞으로 사업 보조기관인 (사)한국수산회와 함께 국제인증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 수출업체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인증 취득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북적이는 '소비재 수출대전'

4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에서 국내 중소기업관계자와 해외바이어들이 수출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동부,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챙긴다

고용노동부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오래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판매직 노동자는 긴 시간 앉지 못해 즉부 질환, 요통, 스트레스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는 이달 중 47개 지방 관서 주관으로 '의자 비치, 앉을 권리 찾기, 휴게 시설 설치' 캠페인을 하고 오는 8월까지 안전보건 전문가 등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 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 6개 지방청 주관하에 유통업체 관

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소개, 사업장별 모범 사례 공유, 원·하청 상생 방안 논의 등을 할 예정이다.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 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가이드' 등도 제작해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보급한다. 가이드에는 작업대, 의자, 신발 등을 활용한 판매직 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 방법도 수록된다.

의자 비치·앉을 권리 찾기 캠페인 건강 가이드 제작, 백화점에 보급

노동부는 오는 9~10월에는 백화점과 면세점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포함한 건강보호 조치를 제재로 하고 있는 지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의자를 비치하고 노동자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넘어 고객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홍보 캠페인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 배려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장마 대비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 운영

농식품부, 초동대응·복구 등 5개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한 '여름철 재해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장마 이후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몇 차례의 태풍이 한반도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은 초동대응, 재

해복구, 식량·원예, 축산, 수리시설 등 5개팀으로 구성되며 기상청 및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과 협조해 기상상황을 상시점검할 예정이다.

또 태풍 및 집중 호우시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장, 취입보 등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한 사전 가동점검 등 상시 가동체제에 돌입하고, 현재 배수개선사업 시행 중인 117개 지구 중 57개 지구는 이달 말까지 조기 완공해 침수피해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반값 연봉’ 광주 현대차 완성차 공장설립 전 걸음

현대차 실무진, 광주산단 방문  
산단조성 완공, 최대한 앞당겨  
직간접 고용효과 1만2천명 기대

이른바 ‘반값 연봉’을 내세운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주시의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 속도를 낸다.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현대자동차 실사단이 현지를 찾은 후 광주시 협상단도 현대차 본사를 방문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4일 오전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개발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현장 실사를 나온 현대자동차 실무진 9명에게 완성차 공장 부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일 오전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현장 실사를 나온 현대자동차 실무진들이 개발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에게 산단 개발 현황과 완성차 공장 부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실무자 9명은 이날 오전 광주 빛그린산단을 찾아 현지 실사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산단 조성 현황에 대한 광주시의 설명을 듣고 산단을 둘러봤다. 실사단은 주로 산단 부지 중 공장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장소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장 부지와 연결된 도로계획을 살피고 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했다. 또 상·하수도를 비롯한 기본 인프라의 진척 단계 등 언제쯤 산단 조성이 마무리 될 것인지에 관심을 나타냈다.

광주시는 현재 65% 수준인 산단 조성을 최대한 앞당겨 공장 설립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 광산구 삼거리동과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걸쳐 있는 빛그린산단은 전체 면적 407만1천㎡ 규모로 조성 중이다. 1단계 264만4천㎡ 가운데 현재 공정률은 65%다. 광주시는 하루라도 빨리 완성차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내년 12월 예정인 완공 기간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실제 착공 가능시기에 대한 실사단 질문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가

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중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주시 협상단도 이날 오후 현대차 본사를 공식 방문해 투자 규모, 생산 차종과 규모, 위탁 기간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광주시는 투자협약 체결, 법적 검토, 투자 기간, 기업 모집, 합작법인 설립, 공장 착공 등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이번 협상의 핵심이 위탁 차종과 규모, 기간 등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차가 ‘경제성을 갖춘 신규 차종’의

생산을 광주에 들어설 공장에 위탁하고 연구개발·판매·사후서비스(AS) 등을 모두 맡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위탁 차종이 경쟁력을 갖추면 광주공장의 역할이 커지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실사단과 광주시 협상단이 서로 교차 방문을 하면서 현대차의 투자 의향서 제출로 시작된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차의 참여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지,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지 등 변수는 여전하다. 2014년부터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포함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사업 실현에 필수적인 완성차 업체의 투자 유치에 총력을 썼으며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투자가 실현되면 광주시는 오는 2020~2021년께 현재 완성차 정규직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절반 수준인 약 4천만원으로 현대차의 차량을 위탁 생산하게 된다. 연간 생산 규모는 약 10만대로 직간접 고용 효과가 1만2천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광주시는 예측한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31일 광주시와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방식 독립 법인에 지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사업 참여 의향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대차 실무진의 현장 실사를 계기로 여러 가지 투자 조건에 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보성군 ‘녹차미인보성쌀’ 11년 연속 선정

보성군이 전남도가 주관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2018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녹차미인보성쌀’이 11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4일 군에 따르면 ‘녹차미인보성쌀’은 보성강 맑은물과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호평벼 품종으로 일반 쌀에 비해 맛이 월등하여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으며, 품종 혼입율, 전문패널 식미평가,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다. 군은 지난 2006년부터 고품질 쌀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종자선정부터 육묘·본답관리, 수확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품질관리와 농가 기술교육 등을 통해 엄격하게 지도·관리·생산하고 있다. 또한, 평당 주수도 70~75주를 심는 일

반 쌀농사와는 달리 60주를 기본으로 심어 쌀의 품질을 높이고, 파종도 7~8kg인 관행 농법을 벗어나 대폭 줄여 4kg으로 제한하는 등 고품질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다. 특히, 쌀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로 6~8%인 일반쌀보다 낮고, 완전미율도 95% 이상이며, 적기수확 및 최신식 저온저장·건조·도정으로 연중 햅쌀의 맛을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녹차미인보성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농산물우수인증(GAP)의 지속적인 관리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물 생산과 농가 안정적 소득보장 등 보성의 청정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m852718@

## 전남 작은 섬마을에 ‘드론 택배’ 뜬다

드론 자율 배송점 시범사업 착수  
재난·재해 대비 이동 배송점 개발  
전남도가 여객선 정기항로가 없는 유인도서에 드론(무인항공기) 택배 배송이 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주소만 입력하면 드론이 알아서 배달해주는 ‘드론 자율 배송점’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드론 자율 배송점’은 우편이나 택배, 각종 배달을 할 때 도로명주소만 입력하면 드론이 스스로 비행하면서 위치를 찾고 사용자가 요구한 지점에 자동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 자율주행과 비슷한 개념이다.



우정사업본부 드론이 전남 고흥 선착장에서 소포 1개, 일반우편물 25개를 싣고 득량도 마을회관으로 배송하기 위해 이륙하고 있다. /뉴스1

전남도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다. 고흥 득량도와 진지도 등 정기항로가 없는 유인도서 2곳에 대해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섬이 많은 전남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물류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산간 지역의 보편적 우편·택배 서비스 실현, 재난이나 폭설 등으로 인한 재해지역에 긴급구호 물품 배달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배송점은 행안부와 전남도, 학계, 드론 전문가 등의 협조를 받아 옥상이 아닌 지붕 구조로 돼 있거나, 마당 등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의 경우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담형 배송점을 개발한다.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해 이동이 가능한 배송점도 개발한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전남도내 279개

유인도 중 현재 정기항로가 없는 86개(31%) 도서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자율 드론 배송점 개발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주소정보의 가치와 활용을 향상시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 완도 전복, 판촉행사로 1700t 판매 ‘끝 모를 추락’ 양식 어민 한숨 돌려

국내 경기침체 등 소비둔화로 전복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생산원가마저 위협받았던 전남 완도 전복 양식 어업인들이 한숨을 돌렸다. 전북 소비촉진을 위해 완도군 공무원들이 팔을 걷고 나서 판촉 활동을 벌인 결과다. 출하 시기가 집중되고 소비 특수(설, 추석 등)마저 끊겨 전복 양식 어업인에게 가장 힘든 시기인 5월 한 달간 판촉행사로 총 1700여t을 판매했다. 이번 행사로 전복 가격하락을 막아 값이 다시 오르는 등 완도 전복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고 군은 자평했다. 완도 전복은 지난 2월 이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유통업체들이 보관하던 전복을 다시 가두리 양식장으로 보내는 최악의 일까지 발생했다. 완도군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

난 4월 24일 전복산업 관련 단체, 어업인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한시적으로 할인 행사를 추진했다. 할인 행사에 완도군 전 공직자와 관련 산업 단체 회원이 동참해 전국 지자체와 대형마트 향우회, 대형 산단 등을 찾다니면서 판촉 활동을 펼쳤다. 할인 판촉 행사에서 선물용 큰 전복의 경우 70% 이상 소진되는 등 전복 양식가두리에 적체된 상당량의 물량이 출하됐다. 한국전복산업연맹회 완도군협회 양관석(64) 회장은 4일 “완도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판촉 활동을 벌여 우려했던 가격 폭락 등 고비는 일단 넘겼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현식 완도군수 권한대행은 “전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김남중 기자

## 보성군 학교급식소 32곳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보성군은 지난 5월 28일부터 4일간 관내 학교급식소를 32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음식을 관리 소홀 등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서다. 군은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소

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2개조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관리 상태 ▲식용 원재료 적정성 및 보관 관리상태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준수 ▲기구·용기 세척·소독관리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보존식 보관여부 등이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보성군은 학교급식소 식중독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 집 수리부터 인테리어까지 '원스톱' 유진그룹, DIY매장 '홈센터' 오픈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 영업 개시  
320여 개 중소제조업체와 협력  
"선진국형 유통매장·지역과 상생"



서울 금천 독산동에 4일 문을 연 유진그룹의 에이스 홈센터 내부 전경.

'개점 3년 연거' 권고를 받았던 유진그룹의 에이스 홈센터 서울 금천점이 4일 문을 열고 본격 영업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조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점을 3년간 연기하라고 사업조정권고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이 '과도하다'며 유진측이 낸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유진그룹 계열인 이에이치씨는 독산동에 건축·인테리어 전문점을 준비하면서 주변 공구 상가들과 상권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수 차례에 걸친 양측간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중기부가 중재에 나섰다, 그같은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은 자재, 공구, 철물, 생활용품 등의 상품을 원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는 홈 임프루브먼트 전문매장이다. 해외에선 이같은 형태의 매장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이를 위해 유진측은 올해 1월 세계 최대의 홈 임프루브먼트 기업인 미국의 에이스 하드웨어와 제휴를 맺고 국내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연면적 1795㎡(약 540평)에 지상 3층 규모인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은 1층엔 공

구와 하드웨어 상품을 비롯해 케미칼, 배관, 건축 기타자재 매장을, 2층엔 자동차용품과 가전·아웃도어 등 생활잡화, 전기·조명, 원예, 애완용품, 인테리어 자재, 페인트 관련 상품을 각각 갖췄다. 3층엔 AS 센터도 있다.

유진측은 이날 점포를 오픈하면서 관련 중소기업, 주변 지역 상가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20여 개 중소 제조업체들과 손잡고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다양한 제품으로 상품군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우수한 제품을 접할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들에게는 입점 기회를 넓히면서다.

인근 도매상을 통해 상품을 조달해 동반자 역할도 강화한다. 도매상들과 국내

외 상품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구매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권 확장과 잠재고객 수요 확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등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에이스 홈센터 관계자는 "홈센터는 집 꾸미기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집을 단장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상품들을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선진국형 유통매장"이라며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은 물론 우수한 중소 제조업체들의 발굴을 통한 판로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은 오픈을 기념해 이달 30일까지 기념품 제공, 경품추첨,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고객 이벤트도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줄리지 않은 비염 치료제 '코메키나'

대웅제약 국내 최초 메퀴타진 복합



대웅제약은 국내 일반의약품 최초로 메퀴타진 성분의 복합 비염치료제 '코메키나' (사진)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코메키나'는 항히스타민제인 메퀴타진과 코막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슈도 에페드린, 콧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벨라돈나, 항염·항알러지의 효과가 있는 글리시리진산, 그리고 무수카페인을 결합한 복합제다.

코메키나는 기존 항히스타민 복합제에 주로 사용되던 클로르페니라민, 디펜히드라민 등의 항히스타민 성분 대비 졸음 부작용이 덜한 메퀴타진을 주성분으로 하면서, 동시에 무수카페인을 추가해 비염치료제의 졸음 유발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슈도에페드린, 벨라돈나, 글리시리진산을 함유해, 알러지성 비염이

외의 코감기와 같은 비알러지성 비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송하나 대웅제약 코메키나 PM은 "2018년 매출 10억원 달성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국내 비염약 No.1 브랜드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IMS데이터 기준 일반의약품 경구용 비염약 시장은 약 200억원의 규모로, 대웅제약은 그동안 소비자들의 충족되지 못했던 니즈를 공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단기간 내에 국내 비염약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잡는다는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안전망 역할 강화

공제부금 압류금지 통장 신설  
국무회의 확정 후 3개월 뒤 시행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부금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조만간 국무회의 확정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제금 수급계좌

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제제도로 4월말 현재 누적가입자는 122만명,

재적부금은 8조원에 달한다.

매달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금을 납입하면 향후 공제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정 복리이율(현재 기준 2.4%)을 적용해 지급하는 구조다. 부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금자 보호대상은 아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를 의미하는 '산이'와 소기업·소상공인을 상징하는 '꿈이'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용품을 제작·배포했다. 이들 용품은 차량용 방향제와 피규어용으로 동시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O2O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모집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뷰티·외식·핸드메이드 업종 대상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상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앱 'O2O플랫폼'에 입점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달 21일까지로 일정 심사를 거쳐 뽑힌 소상공인에게는 마케팅·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앱) 입점 비용 및 마케팅, 입점 교육, 상세페이지 제작비용 등을 총 6개월간 지원한다.

희망재단의 'O2O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초기 O2O플랫폼 사업

체 간 연결을 통해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 확대 기회를 주고 O2O플랫폼 사업체에 대해 함께 성장을 도모한다.

모집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업 10인 미만)인 뷰티·외식·핸드메이드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앞서 재단측은 공모를 통해 헤이뷰티, 다이닝코드, 핸드온 등 총 3개의 O2O플랫폼(앱)을 선정했다.

플랫폼별로 ▲헤이뷰티는 헤어, 네일아트 등 오프라인 뷰티샵 ▲다이닝코드는 식당, 카페 등 식음료 오프라인 매장

▲핸디온은 핸드메이드 제품 제조 및 판매자 등의 입점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판로확대 의지 ▲상품의 경쟁력 ▲입점의 적합성 ▲입점 준비도 등을 평가해 각 플랫폼별로 50명의 소상공인을 고를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제1차 O2O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은 핸드메이드 수공업 전문 O2O플랫폼인 '아이디어스(idus)'가 O2O플랫폼 사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 69명의 소상공인 상품판매를 지원한 결과 입점 소상공인 다수가 매출신장을 기록했다. 특히 입점 전 대비 20배 이상 매출이 급신장하며 지원효과를 톡톡히 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기자



아이들을 위한 보청기 '포낙 스카이 B' 출시

청각 전문기업 소노바(sonova) 그룹의 '포낙(phonak) 보청기'가 4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유소아 전용 보청기 '포낙 스카이 B'와 최초의 유소아 전용 충전식 보청기 '포낙 스카이 B-PR'를 국내 시장에 동시 선보이고 있다. '포낙 스카이 B'는 0세에서 18세에 이르기까지 난청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및 학생들의 청취 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전용 보청기로, 아동의 연령과 난청 정도에 따라 최적화된 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탑재했다.

/손진영 기자 son@

# 간기능 개선제 '리버만 프리미엄' 선포

동아제약 밀크시슬 함유



동아제약은 간기능 개선제 '리버만 프리미엄' (사진)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리버만 프리미엄의 주성분은 밀크시슬엑스 350mg(실리마린으로서 196mg)으로 독성간질환, 간경변, 만성간염과 같은 질환의 보조치료에 효과가 있다. 또한 항산화작용을 도와 간세포를 보호하여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밀크시슬은 영경귀로 불리는 국화과 식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간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등의 대사과 해독 및 살균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과도한 음주,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등에 의해 간 기능이 저하되면 간염, 간경화 등 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120캡슐로 구성돼 있어 1일 1회 1캡슐씩 4개월간 복용할 수 있다.

/박인용 기자

# "아름다운 '바통터치' 기업 포상합니다"

중기중앙회 '가업승계' 포상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 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포상 신청을 이달 29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아름다운 바통터치' 포상은 존경받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2008년 처음 시행돼 올해 11회째를 맞는다.

오랜 기간 경영 이념과 기술 계승·발전을 통해 경쟁력 향상뿐 아니라 고용창출·유지와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는 업력 30년 이상의 가업승계 완료 또는 준비중인 기업이 포상 대상이다. 신청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및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 올 여름도 더치커피에 반하다... 진화하는 콜드브루

여름 시즌 앞두고 커피업계 '주목' 부드러운 풍미 뛰어나 꾸준히 인기

커피업계가 여름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 공략을 위해 '콜드브루' 카드를 꺼내들었다. 콜드브루는 고온의 스팀과 압력으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와 달리 차가운 물을 이용해 짧게는 3~4시간, 길게는 8~12시간 우려내 쓴 맛이 덜하고 부드러운 풍미의 커피다. 국내에 '더치커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아래 아이스 커피를 즐겨마시는 한국인의 커피 취향에 잘 맞아 꾸준히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름을 앞둔 커피업계가 다시 콜드브루에 주목하며 다양한 맛과 형태의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콜드브루 커피가 대중화 되면서 커피업계와 유통업계는 집, 회사 등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콜드브루 제품을 출시했다.

롯데네슬레코리아의 글로벌 커피 브랜드 네스카페는 소비자가 프리미엄 콜드브루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스틱 타입의 차세대 콜드브루 제품을 내놨다. 네스카페 콜드브루는 프리미엄 콜롬비아산 원두를 사용해 입안에 여운이 남는 섬세한 플로럴 향으로 새로운 커피 경험을



▲네스카페 콜드브루.

▶콜드브루 블렌딩 음료. /롯데네슬레코리아·카페베네

제공하는 차세대 콜드브루 제품이다. 콜드브루 특유의 산뜻하고 깔끔한 풍미와 실크같은 부드러움이 감도는 마우스필(Mouthfeel)을 선사한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콜드브루 베이스에 이색 재료를 조합한 배리어이션 메뉴를 선보였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색다르게 콜드브루를 즐길 수 있는 '콜드 폼 콜드브루'를 출시했다. 콜드브루 커피 위에 무지방 우유 크림을 얹어 비엔나 커피를 연상시키며 부드럽고 쫄쫄한 풍미가 특징이다.

스타벅스는 이외에도 '나이트로 쇼콜라'와 '나이트로 쇼콜라 클라우드' 등 질소 주입 콜드브루 커피 신제품을 내놨다. 2016년 콜드브루를 처음으로 출시한 이래 1900만잔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며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에 이어 스타벅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료로 자리잡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카페드롭탑은 시그니처 메뉴인 콜드브루 4종 시리즈가 판매 중이다. '니트로 콜드브루 플레인'은 콜드브루 원액에 질소를 주입해 풍성한 거품과 함께 부드러운



목넘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니트로 콜드브루 플레인에 우유를 더해 고소한 맛을 더한 '니트로 콜드브루 위드밀크'는 더욱 깊고 진한 풍미를 자랑한다. 이외 질소를 뺀 기본 '콜드브루 플레인'과 '콜드브루 위드밀크'는 더욱 깔끔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커피전문점 최초로 콜드브루 커피를 차갑게 또는 따뜻하게 마실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카페베네는 콜드브루에 독특한 레시피를 더한 신메뉴 '콜드브루 헤이즐넛 라떼'와 '콜드브루 바닐라 젤라또라떼' 2종

을 출시했다. 신메뉴 '콜드브루 헤이즐넛 라떼'는 부드러운 콜드브루 라떼에 고소한 헤이즐넛 향을 더한 메뉴. '콜드브루 바닐라 젤라또라떼'는 콜드브루 샷으로 만든 바닐라라떼 위에 바닐라 젤라또를 더해 콜드브루 아포카토와 바닐라라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인기메뉴인 콜드브루의 커피 품질을 더욱 높였고 블렌딩 방식에 변화를 줘 풍부하고 깊은 맛을 완성했다.

SPC그룹의 생과일 음료 브랜드 잠바주스는 콜드브루 커피와 생과일 아보카도를 활용한 '아보카도 커피'를 출시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콜드브루 메뉴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콜드브루와 신선한 과일을 활용하여 잠바주스만의 이국적이면서도 건강한 음료를 선보이게 된 것. '아보카도 커피'는 지난 3월 출시된 '코코넛 커피'의 후속 제품으로 코코넛 칩 토핑을 올려 이국적인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콜드브루 커피에 신선한 생 아보카도를 갈아넣어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름철이면 콜드브루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한다"며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는 콜드브루에 다양한 배리어이션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metrosooul.co.kr

## SKT-BGF, ICT 활용 차세대 유통 '맞손'

미래형 점포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온·오프 연계 등 전방위적 협력 예정

미래형 점포 구축을 위해 SK텔레콤과 국내 편의점 CU 투자회사인 BGF가 손을 잡는다.

SK텔레콤은 BGF와 4일 '전략적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이 도입된 미래형 점포 구축에 나선다. 예를 들어 미래형 점포에서 SK텔레콤의 AI 스피커 '누구'가 고객 응

대를 하고, 생체인식·영상 보안 등을 적용해 고객을 인지한다. 스마트 선반으로는 재고 관리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연계 커머스, 멤버십 및 간편결제 등 전방위에 걸쳐 협력할 예정이다.

양사는 전략적 공동 사업 추진의 첫 단 계로 SK플래닛의 자회사 '헬로네이처'를 합작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헬로네이처는 온라인 프리미엄 신선식품 전문 회사로, BGF는 헬로네이처 유상 증자에 참여한다. 증자 후 SK플래닛과 BGF의 '헬로네이처' 지분 비율은 49.9대 50.1%가 된다.

BGF는 1만3000여곳에 달하는 CU의 편의점 물류 역량을 헬로네이처에 이식해 배송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BGF 이견준 사장은 "온라인 프리미엄 신선식품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이라며 "BGF와 SK텔레콤, SK플래닛이 보유한 역량간 시너지를 통해 헬로네이처를 신선 프리미엄 식품 시장의 선도 회사로 성장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유영상 코퍼레이트 센터장은 "국내 유통을 대표하는 BGF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유통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내 차로 바로 결제하는 'My DT Pass' 출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새로운 서비스인 'My DT Pass' 서비스를 오는 5일부터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My DT Pass'란 고객의 차량정보를 스타벅스 선불식 충전 카드와 연동시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이용 시 별도의 결제수단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동 결제를 통해 주문한 메뉴를 받아 바로 출차가 가능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전용 서비스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 빽스, 샐러드 특화매장 '변신'...제일제면소도 '새단장'

빽스 '고메 샐러드'·'샐러드 투고' 첫선 제일제면소, BI 재정립·1호점 새단장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빽스(VIPS)와 제일제면소 제일제당센터점이 새로운 콘셉트의 매장으로 리뉴얼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빽스 제일제당센터점은 기존 빽스 매장과 차별화했다. 샐러드 특화매장인 '빽스 프레쉬 업(Fresh up)'으로 첫선을 보인다. '빽스 프레쉬 업'은 샐러드 바 원조 브랜드인 빽스가 오피스 상권에 맞춰 '샐러드'를 전문화한 곳으로, '셰프가 직접 만들어 주는 고메(Gourmet) 샐러드'와 '샐러드 투고(to go)' 메뉴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셰프가 직접 만들어 주는 고메 샐러드'는 셰프가 고객이 직접 고른 채소·토핑·소스를 즉석에서 섞어 담아 '나만의 샐러드'로 만들어 주는 코너다. 샐러드 레스토랑을 빽스의 한 색선으로 구성했으며, 세



빽스 제일제당센터점 '셰프가 만들어 주는 고메 샐러드' 코너.

/CJ푸드빌

프의 노하우가 담긴 '시그니처 샐러드 레시피 4가지(후제언어 샐러드, 치킨 콕 샐러드 외)' 등 셰프가 제안하는 특별한 샐러드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빽스 제일제당센터점은 구입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샐러드 투고' 메뉴를 처음 선보이는 점도 새롭다. 매장 입구에 쇼케이스를 두고 판매하며, '셰프가 직접 만든 제대로 된 한 끼'라는 콘셉트로 '후제언어 페타 샐러드', '비프 스테이크 그릴 베지

샐러드' 등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든든한 '빅 프레시 볼' 샐러드 5종을 판매한다.

제일제면소는 '추억에맛을 더하는 별미 국수 공방'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재정립하고, 1호점인 제일제당센터점을 새단장했다.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 구성과 함께 제일제면소가 가진 면 노하우를 살린 특색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 청년창업리그 우승팀 '밀리밀' 홍보활동 지원

하이트진로

'직장인 아침먹기 프로젝트' 콘셉트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개최한 '제2회 하이트진로 청년창업리그' 최종 우승팀 '밀리밀'의 브랜드 홍보활동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과 직장인 등 2030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고자 '하이트진로 청년창업리그'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단순 공모전 개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상팀들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후 멘토링 및 홍보 활동 지원 등을 기획하게 됐다.

올해는 지난해 대상팀의 간편 쌀 대체식 브랜드인 '밀리밀' 론칭을 기념한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간편하지만 건강



이우빈(왼쪽 첫번째), 박진세(왼쪽 세번째) 밀리밀 공동대표 등 임직원들이 농현동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한 한끼 식사 '밀리밀(milimeal)'의 브랜드 가치에 부합하는 타깃층을 선정, '직장인 아침 먹기 프로젝트' 콘셉트로 마련했다. 아침을 거르기 쉬운 3040 직장인을 위해 출퇴근시간에 맞춰 제품 시음 및 할인 행사를 펼친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타깃층의 특성을 고려해 약국과 연계한 점이 눈길을 끈다.

/박인용 기자

# 사회문제 해결 위한 '나눔과 꿈' 단체 모집

## 삼성전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재원 부족한 비영리단체 지원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는 국내 최대 사회복지 공모사업인 '나눔과 꿈'에 참여할 비영리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국내 비영리단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제안서는 오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나눔과 꿈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2016년 시작해 올해 3회째인 나눔과 꿈은 좋은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해 사업을 실행하기 어려운 비영리단체를 지원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연 1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 공모사업이다. 사업 특성에 따라 1년간 1억원에서 최장 3년간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 2회 '나눔과 꿈'에 최종 선정된 51개 기관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비영리 사회적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 하한선이 없어 좋은 사업 아이디어라면 규모가 작더라도 응모 가능하다.

또한, 창의적인 사회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꿈 사업(선도적 복지모델화사업)'과 지역사회의 복지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

결하는 '나눔 사업(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응모할 수 있다.

9월 서류심사, 10월 면접심사를 거쳐 11월에 최종 60여개 지원 단체를 선정하며 내년 1월부터 사업비가 지원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신한카드 부동산서비스사와 상권분석 플랫폼 구축

신한카드가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와 상업용 부동산 분석 및 컨설팅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지난 2014년부터 리테일 본부 내에 빅데이터 팀을 신설해 국내 주요 상권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다.

이번 MOU로 신한카드는 본사의 빅데이터 분석역량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부동산

컨설팅 역량을 접목해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또 양사는 신한카드의 카드 데이터와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통해 리테일 상권 분석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주요 부동산 운영사, 유통사 및 대형 리테일러를 대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와 상호



왼쪽부터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황정삼 대표, 신한카드 이찬홍 플랫폼사업그룹장.

/신한카드

협력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서 더욱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방탄소년단 돌풍에 '컨티뉴' 백팩 화제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백팩 '컨티뉴'가 4일 주목을 받고 있다.

RM은 지난해 가족들과 휴식차 유럽 여행을 떠난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 여행지에서 그가 선택한 가방이 사회적기업 '모어댄'에서 만든 컨티뉴 백팩이었기에 더욱 화제가 됐고 해당 제품은 매진됐다.

RM의 가방은 SNS에 퍼져나가며 화제가 됐다. 당시 RM이 사회적기업의 업사이클링 제품 가방을 구매한 것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개념 있는 아이돌(개념돌)의 착한 소비", "폐기물을 재활용이라하는 제품이라니 더 놀랍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이런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네티즌들의 컨티뉴 홈페이지 방문이 늘어나며, 방문객 수는 지난 4월 8100명에서 5월 1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컨티뉴는 BTS의 리더 RM이 착한 소비를 시작한 이래, 강호동 등 유명 연예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컨티뉴는 지난해 3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현재 지난해보다 두배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했다.

한편 모어댄은 지난 4월부터 흡소핑에 진출해 좋은 성적을 냈다. T-커머스 흡소핑(SK스토어) 채널의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제품 육성 프로젝트인 '유난히의 굿즈' 1차 런칭 방송에 모어댄 컨티뉴 백팩 판매를 진행해 1~3차 모두 '완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일류 스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착한 소비가 이어지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컨티뉴의 경우 명품에 견줄 수 있는 탄탄한 디자인과 품질, 훈훈한 사회적기업 스토리까지 더해지며 착한 명품으로 자리잡아 착한 소비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사용한 백팩 컨티뉴의 사진.

/SK이노베이션

### 오늘의 운세

6월 5일 (음 4월 22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리는 없다. 60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으니 서두르지 마라. 72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하라. 84년생 어린 사람과 다툼이 생기니 내 욕심만 부리지 마라.
- 소** 49년생 뜻하지 않은 일로 심신이 고달픈지 휴식이 필요한 날이다. 61년생 신세진 사람에게 빚을 갚을 날이다. 73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좋은 하루이다. 85년생 동료와 협정이 서로에게 이로움을 준다.
- 호랑이** 50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하자. 62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나 말조심해야 한다. 74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이다. 86년생 지인 관리를 잘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 토끼** 51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63년생 하늘도 파랗고 공기도 맑으니 여행을 떠나볼까. 75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족에게 있으니 가정의 화목이 우선이다. 87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밀어붙일 때이다.
- 말** 52년생 한 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한 법이다. 64년생 일이 미뤄져도 맘 졸이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76년생 간고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한 날이다. 88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보자.
- 뱀** 53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한 하루이다. 65년생 계획을 세워야 나아갈 수 있으니 결과부터 행기지 마라. 77년생 귀인을 만나면 장기투자도 괜찮다. 89년생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것이니 어쩔 수 없다.

- 말** 54년생 기회가 왔어도 능력이 있어야 잡을 수 있는 법이다. 66년생 남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주관을 갖도록 노력하자. 78년생 기다리던 문서는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90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 양** 55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하자. 67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79년생 계속해서 노력하면 하늘이 도와줄 것이다. 91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활짝 열렸으니 그동안 미뤄둔 일을 처리하자.
- 원숭이** 56년생 자신의분수를 지키려면 실수가 적다. 68년생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주변에 가까이하지 마라. 80년생 가족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숨겨야 할 때이다. 92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기니 이 또한 좋다.
- 닭** 57년생 갑자기 격한 운동은 몸에 해롭다. 69년생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이득을 볼 수 있다. 81년생 갑자기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93년생 상대방의 단점을 건드리면 나에게 해가 되어 돌아온다.
- 개** 58년생 흘러가는 대로 버려두는 것이 상책이다. 70년생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이다. 82년생 끝까지 참는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기는 법이다. 94년생 자기중심으로부터 생각이 좁아지는 법이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
- 돼지** 59년생 물이 깊어가고기도 모이는 법이니 야량을 베풀자. 71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83년생 부부적 결합이 전체를 망칠 수 있다. 95년생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바뀌니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1	7	2			
	1	2			3			
	2		5			1	8	
	3		6					1
		4	5	3	6			
7			1			2		
1	6		3			5		
		2		5	8			
8		3	4					9

1			6		2			3
		3		7		2		
	5		4		3			6
		2		8		1		
				1		6		8
8				5			3	9
4	3			2				7
			1		6		8	
				9		5		

스도쿠 정답

6	1	9	2	7	5	8	4	3
9	8	5	1	3	2	7	6	4
7	5	3	8	4	6	1	9	2
5	2	7	1	8	9	6	3	4
2	8	9	6	5	7	1	2	8
1	7	6	2	9	4	8	5	3
8	1	7	5	9	6	2	3	4
5	9	4	8	2	1	3	7	6
2	6	1	7	4	5	8	9	3
7	6	8	9	4	1	2	5	3
5	2	9	1	3	8	6	4	7
6	4	1	5	2	9	1	8	7
8	7	6	9	5	1	3	2	4
9	5	1	6	8	2	4	3	7
4	9	6	4	1	7	8	5	2
1	7	2	8	5	3	9	6	4
3	8	5	2	6	9	7	4	1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컬래버 악재는 컬래버로 승부



**이상현**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최근 정부나 민간 기관에서 발표되고 있는 산업동향과 경영분석 등의 결과에 따르면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성장률 감소는 역대 가장기간으로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자영업 대출은 심각하게 늘어나는 중이다. 여러가지 원인과 악재가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자영업과 창업시장에서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한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요즘 그 한가지 방법 중 하나가 자영업과 창업시장에서 부는 컬래버레이션을 포함한 점포 복합화 바람이다. 하나의 아이템에 하나를 더하거나 3~4개의 아이템을 협업한 경우다. 이는 앞서 말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지

속에 따른 소비 위축을 극복해 보고자 다 양한 아이디어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하나의 아이템으로 승부하기 보다는 연계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함께 판매해 매출의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켜 불황을 탈출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같은 복합화는 저비용으로 매출 다 각화를 꾀하는 대표적인 창업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락을 더한 편의점 뿐만 아니라 AI 등대 외적인 변수를 대처하기 위해 피자나 스파게티, 떡볶이를 더한 치킨 전문점, 프리미엄 샌드위치나 젤라또 등을 더한 커피 전문점, 타코와 브리또를 더한 김밥 전문점, 이탈리아 커틀렛과 파스타를 특화시킨 돈가스 전문점 등이 대표적이며, 심지어 최근에는 코리아+베트남+타이 음식을 한곳에서 맛볼 수 있는 요리전문점까지 복합형 창업은 현재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창업시장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화(컬래버레이션) 창업에 성공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 단순히 하나의 아이템에 다른 아

이템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을 결합하라. 둘째, 변화하는 트렌드를 파악한 후 그것이 반영된 업종을 선택하라. 셋째,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을 업종을 선택하라. 넷째, 타겟 소비자들의 특징과 선호도 등을 분석한 후 이에 맞는 적절한 전략 구사하라. 다섯째,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수익률의 변동이 크지 않는 업종을 선택하라.

복합형 창업 중 특히 소비자 창업의 경우에는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투자비를 최소화 하면서 고객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효과를 불러 오야 하므로 상품의 배열이나 인테리어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합형 창업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형 창업, 여기에 차별화된 콘셉트와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 된다면 성공창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현 소장 (컨설팅학 박사)



**현대해상, 사회공헌 '소녀 달리기' 행사**  
현대해상은 지난 2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소녀 달리기 - 달리기 축제'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8회째를 맞이한 이날 축제에는 초등학교 여학생 900여 명과 학부모 4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대해상은 달리기 코스를 완주한 학생 1명당 1만원의 기부금을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했다. /현대해상



**BNK부산은행,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와 상호 협력**  
BNK부산은행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스킵십 마케팅에 나섰다. 부산은행은 6월부터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및 54개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BNK 부산은행 우수 중개업소' 선정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오른쪽 다섯번째부터) BNK부산은행 안감찬 여신운영그룹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광호 부산지부장, 뉴경동공인중개사사무소 홍준성 소장. /BNK부산은행

## 청산하지 못한 과거



**기지 수집**

**안상미**  
(파이낸스&마켓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쇠신은 커녕 지난 해부터 이어진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와 경영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 DGB대구은행 얘기다. 대구은행은 당초 4일 새로운 은행장 선임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잠정 연기했다. 김경동 대구은행장 내정자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다. 대구은행 이사회는 "조직 안정화를 바라는 행장 내정자의 요청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이사들의 뜻에 따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임시주총을 연기하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해 새로운 주총 일자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 노조 역시 이사회 결정에 앞서 "이미 박인규 전 행장 비리로 도덕성에 흠결이 난 상황에서 김 내정자와 관련된 문제가 또 발생한다면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예정된 은행장 선임을 중단하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문제는 내정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미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검찰은 대구은행이 경산시 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수사를 시작했다. 김 내정자는 당시 해당

지역 책임자였다. 임추위가 2명의 최종 후보군(순리스트)을 결정했을 때도 노조는 "은행장 후보 2명을 둘러싼 채용 비리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임추위가 차기 경영자 리스크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결정했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전 행장이 구속까지 된 초유의 사태에 대한 반성은 물론 쇠신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은행 내부와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모두 싸늘하다.

이제 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이 언제 열릴지는 전적으로 검찰에 달렸다. 선임 연기의 이유를 의혹 해소라고 내세운 만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기 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기 힘들다. 결국 스스로 쇠신하지 못한 대가는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으로 돌아온 셈이다.

/smahn1@metroseoul.co.kr



**SC제일은행, 홍콩·싱가포르 투자설명회**  
SC제일은행은 지난달 29일과 31일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홍콩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점과 싱가포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점에서 각각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하이디 토리비오(Heidi Toribio) 스탠다드차타드그룹 금융기업영업 대표가 5월31일 싱가포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점에서 열린 '한국의 날(Korea Day)' 행사에서 현지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투자지원 전략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SC제일은행



**롯데제과,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문품 전달**  
롯데제과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장병과 훈령병에게 위문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위문품 전달식은 지난 1일 51사단(전승부대) 사령부에서 진행했다. 전달되는 제품은 빼빼로, 초코파이, 팜로드(초코블리, 쿠앤크 브라우닝) 등 약 1000박스, 약 5000천만원(소비자가 기준) 상당이다. /롯데제과



**오비맥주, 찾아가는 물 환경교육 실시**  
오비맥주는 지난 3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환경재단과 함께 서울시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물 환경교육' 특별 공개강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수호천사 물 사랑 환경교실'은 오비맥주가 2017년부터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전국의 학교를 직접 찾아가 펼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 물 지키기 수호천사' 캠페인의 일환이다. /오비맥주

### 인사

- ◆외교부 △주방글라데시대사 허강일 △주아일랜드대사 여운기
- ◆행정안전부 △대전정사관리소장 조옥형
- ◆기획재정부 △과장급 △운영지원과장 조용수
- ◆금융위원회 △전보 △과장급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유재훈
- ◆한국토지주택공사 △홍보실장 황정섭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스템융복합연구실장 장문석 △에너지네트워크연구실장 이재용
- ◆교보증권 (부부장) △IB부문 박종길 (본부장) △DCM본부 이이남 △프로젝트금융본부 최성만

- <부서장> △채권금융부 유승주 △기업금융1부장 상진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기획지원본부장 김종철 △교육본부장 최영우 △기획조정팀장 김선구 △역량개발교육팀장 신건호 △노사교육팀장 신언우 △청소년교육팀장 강지욱

### 부음

- ▲김경태씨 별세. 김동선(IBK투자증권 PF금융2팀 부장)·동익(죽변고등학교 교사)·지연(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수)씨 부친상 = 3일,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특실), 발인 5일 오전 9시. 033-572-1141
- ▲전용택(6·25참전유공자회충구지회장)씨 별세. 전성수(제이앤씨해운대표)·취수(한국수력원자력부사장)·필수(GS건설이란지사장)씨 부친상 = 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13시. 02-3410-6915
- ▲김영숙씨 별세. 진기천(보통개발원 기획관리부문 부장)·기욱(글로벌시스템즈 기술기획팀장)씨 모친상, 최근덕(IMT호텔 이사)·박노철(마포구청 주무관)씨 빙모상 = 4일, 가평군 농협효문화센터 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8시. 031-581-4442

### 국민연금공단 신임 연구원장에 이용하 박사 임명



국민연금공단은 연구원장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임 연구원장에 이용하 현 국민연금연구원장 직무대리(사진)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1963년생인 이 신임 연구원장은 경북고, 고려대 농경제학 학사,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출신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서 지난해 11월부터 연금제도연구실장(연구원장 직무대리)으로 재직해 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과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b>metr 메트로미디어</b>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1721-9800, FAX: 021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 9826
독자센터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397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64호

# 현 중3 대입, 수시·정시 통합 모집 사실상 백지화

교육부 “국가교육회 결정 존중”  
8월까지 대입개편방안 마련할 것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두 곳에서 각각 결정된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생부·학종·수능 전형 적정 비율’, ‘수능 절대평가 방안’,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교육부는 ‘수능100%전형시 수능원점수제 도입’, ‘학종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서면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교육부의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와 권고사항 등에 대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하고 “공론화 범위 미포함, 교육부 결정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평가전문가, 대학교 및 평가원 추천 연구자 등과 함께 협력해 전문가·직접적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해관계자 중심의 간담회, 설문·서면조사, 대입정책포럼 등 의견수렴과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31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로 ▲학생부·학생부종합·수능전형간 비율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3가지로 확정하고 공론화 미포함 사항과 권고 내용을 교육부에 반송한다. 다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한 공론화 범위와 권고안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난 4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포함했던 ▲수시·정시모집 통합선발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생 부담 증가와 대입전형 복잡성 증가, 전형기간 축소로 인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부실 등이 우려된다면서 수시·정시 통합 여부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고, 아울러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모집 분리모집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수능 100% 전형시 원점수제 공여부는 교육부가 전문가와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에 대해 현실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들어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공론화 범위에서는 제외했다. 다만 “향후 교육부가 필요한 경우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원점수제 검토 여부에 대해 “이번 추진 방안은 지난 31일

국가교육회의 결정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이라면서 “추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평가 방법에 대해 ‘전과목 절대평가’(1안),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추가 도입’(2안) 등 두 가지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이밖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 대입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 ▲수능 과목에 통합사회·통합과학 포함 여부 ▲대학별 고사 ▲수능-EBS 연계율 등 국가교육회의가 기술적·전문적 검토를 거쳐 확정해달라고 권고한 사항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와 부대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가교육회의의 시민 참여형 속의 공론화와 학생부 기재 개선 정책 숙려 내용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8월까지 종합적인 대입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 경민대 ‘3D프린팅’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경민대학교(총장 이연신)는 지난달 31일 사단법인 한국3D프린팅협회(회장 최진용)와 3D프린팅 분야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비롯해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수 연구지원 및 특허출원, 산업현장 실습 교육 및 취·창업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병조 경민대 부총장은 “경민대가 3D프린팅과 융복합 부문에서 관련기술과 전문인력을 중점 육성하고 저변확대에 앞장서는 경기 북부권역 허브센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병무 한국3D프린팅협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3D프린팅 산업분야 전문인력양성과 우수기업 발굴, 투자유치 등



지난달 31일 경민대와 사단법인 한국3D프린팅협회가 ‘3D프린팅 분야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민대학교

의 사업 추진을 통해 축적해온 자산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3D프린팅 공동 프로젝트 개발과 인재육성을 비롯해 스마트팩토리 등 4차산업 제조혁신 분야에서 경민대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세종대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세종대학교·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규)는 세종대 일반대학원이 2018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원)입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4일~11일 오후 5시까이다.

신(원)입생 선발 주요 학과로는 나노신소재공학과, 바이오융합공학과, 건설학

공공학과, 인공지능언어공학과, 국방시스템공학과, 중공통상학과 등으로 현재 석사 과정 46개 학과, 박사(석·박사통합)과정 42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호텔관광경영학과, 조리외식경영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등의 경우 국내 대학 중 첫 설립에 관련 분야 학문적 체계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대 일반대학원 모집학과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graduate.sejong.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 성신여대 신입총장 양보경 교수 선임

학교법인 성신학원(이사장 황상익)은 지난 3일 이사회를 갖고 총장후보 선거에서 1위로 선출된 양보경 지리학과 교수(63·사진)를 제11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양 신입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4년이다.

황상의 성신학원 이사장은 “성신 역사 최초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선거에 담



긴 뜻을 온전히 수용해 민주 성신의 새로운 조타수로 양보경 총장을 선임했다”며 “재학생투표율 54.1%의 예견치 못한 기록은 성신여대를 넘어 한국 대학사에 길이 빛날 성취이며 모든 구성원들이 성신의 민주화와 정의로운 발전을 염원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포괄임금제 규제, ‘인건비·근무강도’ 영향”

기업 88.9% “영향 받을 것” 답변  
시기상조 ‘38.9%’ 규제 필요 ‘35%’

정부가 오는 7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기업 10곳 중 9곳이 포괄임금제 규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은 기업 인사담당자 7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9%가 ‘포괄임금제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영향이 미치는 부분(복수응답)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의견이 65.1%로 단연 높았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근무강도 증가’(25.2%), ‘근로시간 축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20.5%), ‘신규 채용 감소’(20%), ‘생산성 저하’(18.3%),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9.6%) 등이 있었다.

특히 포괄임금제 규제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직종으로는 ‘제조·생산’(34.5%)이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서비스’(10.9%), ‘영

### 기업 89% 포괄임금제 규제 영향 있어



업·영업관리’(10.6%), ‘연구개발(R&D)’(9.3%), ‘IT·정보통신’(7.5%), ‘인사·총무’(6.1%)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 이상인 56.7%였다. 상시근로자 규모별로 ‘50인 이상’(73.4%), ‘100인 이상’(67.4%), ‘30인 이상’(64.8%), ‘300명 이상’(62.7%), ‘10인 이상’(54.2%), ‘5인 이상’(40.5%), ‘5인 미만’(33%)의 순으로, 10인 미만 기업의 포괄임금제 시행 비율이 낮았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

간, 휴식시간 측정이 어려워서’(40.5%), ‘업·직종 특성상 시간외 업무가 자주 있어서’(40.2%)를 많이 꼽아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포괄임금제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32.2%), ‘임금 계산이 편리해서’(27.6%) 등이 있었다.

포괄임금제 규제에 대비한다는 기업은 75.1%로 나타났고, 그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초과근로시간 제한’(44.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초과, 연장근로 수당 산정 기준 마련’(33.1%), ‘탄력, 유연근로제도 도입’(30.8%), ‘야근 결재제도 도입’(19.7%), ‘기존 연봉 감축(연봉에 포함된 야근, 특근 등 수당 제외)’(18.7%), ‘계약직 근로자 채용 확대’(10.7%) 등이었다.

포괄임금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나 시기상조다’(38.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포괄임금제 규제는 필요하다’(35.6%), ‘국내 경영 환경에 안맞아 불필요하다’(25.5%) 순으로 조사됐다.

/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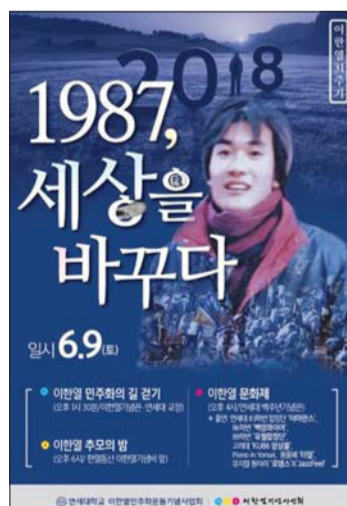
### 연세대 이한열 31주기 추모제

연세대(총장 김용학)는 오는 8일 오후 3시 연세대 한열동산에서 이한열 31주기 추모제를 연세대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용학 연세대 총장)와 이한열기념사업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세대는 올해 김용학 총장을 회장으로 하는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발족했으며, 1일부터 9일까지를 공식 추모기간으로 선포했다.

공식 추모기간 동안 추모제를 비롯한 추모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추모제에 앞서 7일 오후 4시 연세대 대우관 각당헌에서 영화 ‘1987’ 장준환 감독, 김경찬 작가, 이우정 대표, 이경란 이한열기념관 관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학생들이 참여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가 열린다.

추모제 다음날인 9일 오후 1시 30분에는 이한열기념관에서 출발, 연세대 교정 안에서 민주화운동의 자취가 남은 장소 따라 걷는 ‘이한열 민주화의 길 걷기’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이한열문화제-1987, 세상을 바꾸다’ 행사에서는 연세대 80년대 학번들의 동문 합창단, 고려대 합창단, 재학생 동아리가 참여해 노래와 춤 등으로 이한열과 만나는 시간이 이어지고, 오후 6시에는 이한열 동산에서 이한열 추모의 밤 행사가 개최된다.

1986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이한열 열사는 2학년이던 1987년 6월 9일 연세대에서 열린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시위 참여 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뒤 27일간 투병하다 7월 5일 숨을 거뒀다. 당시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피 흘리는 사진은 전두환 정권에 맞서 6월 항쟁을 이끌어낸 기폭제가 됐고, 정부로부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는 항복을 받아내는 계기가 됐다.

/한용수 기자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 “관객 호응 힘입어 2편 개봉... 3편까지 시리즈물 기대”

스타인터뷰

영화 ‘탐정: 리턴즈’

권상우

“‘탐정’이잖아요. 탐정사무소는 이번 편에서 차립니다. ‘탐정:더 비기닝’이 인트로였고, ‘탐정:리턴즈’(탐정2)가 진정한 본편이라는 거죠.” 배우 권상우(41)가 다시 한번 ‘탐정’ 시리즈로 관객을 만난다. 기존에 호응을 받았던 성동일에게 신규 파트너 이광수까지 가세해 더 큰 웃음을 관객에게 선물한다.

오는 13일 개봉하는 ‘탐정:리턴즈’(감독 이언희)는 설록 덕후 만화방 주인 강대만(권상우)과 레전드 형사 노태수(성동일)가 탐정사무소를 개업, 전직 사이버수사대 에이스 여치(이광수)를 영입해 의뢰받은 사건을 파헤치는 코믹범죄추리극이다. 2015년 추석 극장가에 입소문만으로 262만 관객을 동원한 ‘탐정:더 비기닝’의 스코어를 깰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최근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배우 권상우를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 이하 일문일답.

- ‘탐정:리턴즈’가 곧 개봉한다. 시리즈로 돌아온 기분이 어떤가.

“시사회 때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봤다. ‘탐정:더 비기닝’ 개봉 때 상영관 수도 적었고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어렵게 스코어를 달성했다. 그런데 이렇게 후속작을 내놓을 수 있어 뿌듯하고, 일단 스타트지점이 그때와는 다르니까 기대를 하고 있다. 1편보다는 스코어가 좋아서 3편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짝짝 이어가는 시리즈물이 되기를 바란다.”

- 드라마 ‘추리의 여왕’에 이어 ‘탐정’까지 후속편이 제작됐다. 추리극을 원래 좋아하는가.

“솔직히 추리물이라는 장르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추리의 여왕’ 같은 경우는 춘데레같은 캐릭터의 성격과 최강희 씨와 티격태격하는 지점이 재미있어서 출연했고, ‘탐정’은 주인공의 별볼일없는 사생활이 흥미로워서 출연했다. 사건을 파헤치는 것보다 대만의 설정들, 일상 속 재미를 끄집어내는 것이 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다. 재미있게 찍었기 때문에 캐릭터와 혼연일체되어 지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화면에 보여질 수 있던 것 같다. 실제 강대만과는 100% 닮지는 않았지

만, 그런(강대만스러운) 모습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다.”

- 성동일과는 두번째 호흡이었고, 이광수까지 합류했다. 함께한 소감은.

“시리즈 출연을 결심한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서이다. 성동일 선배는 연기할 때 진중하시고 또 재미있다. 배태랑 선배와 함께하는 재미가 있었고, 광수는 드라마, 예능, 영화까지 섭렵할 정도로



탐정2, 베테랑 선배·끼 많은 후배와 함께해 그동안 스크린 활동 뜸해... 이번엔 영화로 승부

역시나 끼가 많은 친구라는 걸 새삼 느꼈다. 동일 선배를 통해 광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처음 봤을 때부터 어색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작품에 스며드는 모습에 감탄했다.”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더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인생작은 영화가 더 많다. ‘말죽거리 잔혹사’ ‘동갑내기 과외하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차기작 ‘두 번 할까요?’와 ‘귀수’가 기다리고 있다. ‘두 번 할까요?’는 ‘탐정’ 시리즈와는 또 다른 결의

코미디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그리고 ‘귀수’는 ‘신의 한수’의 프리퀀로 오랜만에 액션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해외 활동이랑 드라마 촬영으로 스크린 활동은 많이 못했다. 2018년과 2019년은 영화를 승부를 보려 한다.”

-작품 고르는 기준은.

“일단, 대본을 봤을 때 장르를 떠나서 술술 잘 읽히는 게 좋다. 하지만, 아무리 잘 읽혀도 능력 밖이라고 생각되면 고사하는 편이다. 딱

봐도 내가 연기하는 것보다 다른 배우가 어울릴 것 같으면 내 것이 아닌 거다. 내가 참여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동시에 흥행성적도 좋은 작품을 만나는 게 제일이다.

그래서 ‘탐정’ 시리즈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만화방을 운영하는 육아대디 강대만이 다른 배우들은 꺼려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강대만이 나오니까 캐릭터가 완성됐고 잘 어울려졌다. 만족스럽다. 그리고 나의 또 다른 모습은 다른 영화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다.”

-40대 권상우에게 ‘변화’와 ‘나이든다는

것’은 뭘까.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는.

“아직도 ‘권상우’하면 ‘천국의 계단’을 많이 이야기하셔.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지금의 권상우는 알아요. ‘천국의 계단’은 모른다. 현재 내가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돌아오지 않는 지금 이 시간을 스마트하게 활용하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가족에게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 되고 싶다. 배우로서는 멜로, 코미디, 액션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유연한 배우가 되고 싶다. 스스로도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쨌든 ‘말죽거리 잔혹사’를 비롯해서 대표작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고 다시 회자될 수 있는 영화에 출연한 것만으로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진/CJ엔터테인먼트·손진영 기자 son@



## 관부 재판 실화 다룬 ‘히스토리’ 27일 개봉 확정 ‘식샤를합시다3’ 집나간 입맛·재미 잡는다

日정부 맞서 싸운 할머니들의 이야기 연기파 배우 대거 출연... 기대감 높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김희애, 김해숙, 예수정, 문숙, 이용녀, 김선영, 김준환, 이유영이 그리는 관부 재판 실화 ‘히스토리’가 오는 6월 27일 개봉을 확정했다.

영화 ‘히스토리’는 1992년부터 1998년

까지 6년 동안 오직 본인들만의 노력으로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선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로, 당시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을 만큼 의미미한 결과를 이뤄냈음에도 지금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관부 재판’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6년에 걸쳐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며 재판을 이끌어간 사람들의 치열했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

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기대를 높인다. 또한 재판 과정을 목격한 울림으로 전하는 배우들의 강렬한 열연과 마음 한 겹을 뜨겁게 적시는 스토리는 전 세대 관객의 뜨거운 공감 열풍을 이끌어 올여름 극장가를 의미 있게 장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러한 가운데 ‘히스토리’는 관객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높은 관심을 입증하듯 런칭 포스터와 용기 포스터, 메인 예고편과 관부재판 코멘터리 영상 등이 공개될 때마다 열렬한 반응을 모으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예고편만 봐도 가슴 아픈 스토리에 진심 어린 공감을 표하며 영화를 향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 모니터 시사회를 통해 관객의 압도적인 호평을 확인한 데 이어 예비 관객들의 기대평 속에 벌써부터 뜨거운 공감 열풍을 예고하고 있는 ‘히스토리’는 2018년 대한민국에 강렬한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윤두준·백진희 등과 호흡 맞춰

오는 7월 ‘식샤를 합시다’가 시즌3로 돌아온다. 배우 김동영, 병헌, 서벽준이 ‘식샤를 합시다3: 비긴즈’에서 유쾌한 절친 3인방으로 출격한다.

tvN 새 월화드라마 ‘식샤를 합시다3: 비긴즈’(극본 임수미/연출 최규식)는 서른 넷, 슬럼프에 빠진 구대영(윤두준)이 이지우(백진희)와 재회하면서 스무살 그 시절의 음식과 추억을 공유하며 상처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지난 시즌 1,2에 이어 새롭게 돌아오는 ‘식샤를 합시다3: 비긴즈’는 윤두준과 백진희, 그리고 이지우와 안우연이 출연을 확정 지으며 울여름, 안방극장 최고의 이슈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김동영, 병헌, 서벽준은 극중 스무살 구대영의 대학 시절 절친 3인방으로 등장, 각자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리얼한 연기로 극의 활기를 담당할 예정이다.

먼저 영화 ‘독전’의 농아남매 동영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김동영은 친구들과 사이에선 상남자이지만 유독 여자 앞에만 가면 말이 없어지는 소심한 성격의 모테솔로 ‘배병삼’으로 변신한다. 그동안 드라마 ‘리턴’, ‘작은 신의 아이들’과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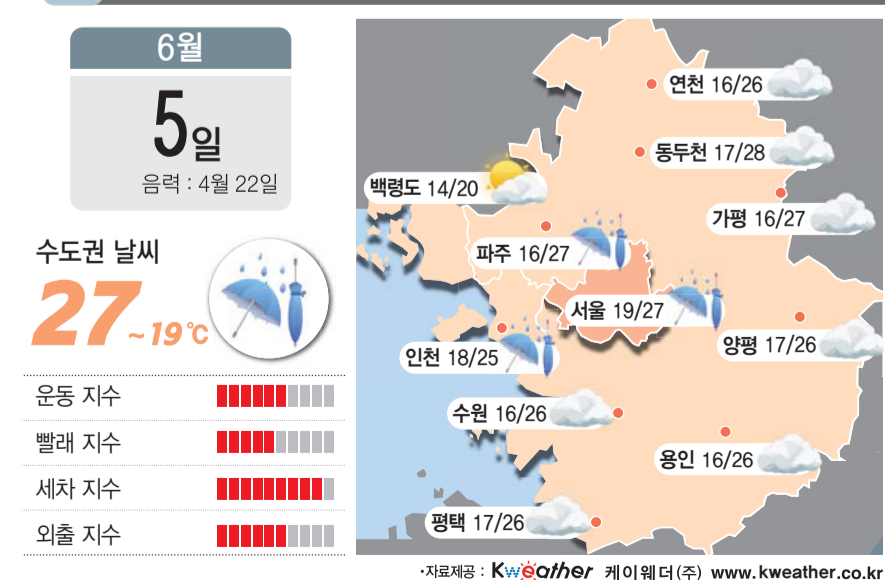
왼쪽부터 김동영, 병헌, 서벽준. /호주엔터테인먼트·클로버컴퍼니·와이트리

‘밀정’ 등 굵직한 작품들에서 활약하며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그가 이번 작품을 통해 또다시 존재감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병헌이 맡은 ‘김진석’은 자기애가 충만한 자백 캐릭터. 병삼과 달리 여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만 그도 역시 연애 경험이 없는 모테솔로다. 드라마 ‘판따라’, ‘실종노아르M’과 연극 ‘여도’, ‘S 다이어리’,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연기력을 키워오고 있는 병헌이 진석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낼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독립 영화와 각종 광고를 통해 그가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신인 배우 서벽준은 ‘이성주’로 분해 연상 킬러 역할을 톡톡히 해낼 예정. 모범생 비주일에 반전 있는 캐릭터를 표현해낼 그의 활약에 기대가 모아진다.

### 오늘의 날씨



신정원 기자 sjw1991@

신원선 기자





[산업] 한국GM '더 뉴 스파크'로 부활 시동 05



Life

[유통] 커피업계 여름시즌 앞두고 콜드브루 출시 11



# JW중외의 '생명존중', 의료·봉사·학술·예술서 꽃피다

JW중외제약이 후원하는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

/JW중외제약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 86 JW중외제약

JW중외제약은 '생명존중(生命尊重)' 정신을 바탕으로 공익법인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질병 치료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11년 개인 사재(약 200억원)를 출연해 만들었다. 이후 이사장을 맡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보건의료 분야 학술연구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참인술을 실천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는 '성천상' 시상 사업, 학술·장학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지원 활동과 복지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음악을 연계한 활동이 그중 대표적이다.

#### ◆장애인합창단 후원

JW중외제약은 홀트 일산복지타운 소속의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영혼의 소리' 합창단을 14년째 후원하고 있다. 1999년 창단된 '영혼의 소리'는 홀트일산복지타



지적장애인 합창단 14년째 후원해 매년 예술의 전당서 정기공연 펼쳐 장애인 예술가들의 재능 발휘의 장 미술 공모전 'JW아트 어워즈' 열어

체계적·지속적인 공헌활동으로 생명존중 이념 실천해 나갈 것

운 소속 장애원생들 중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3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뇌병변, 정신지체, 정신질환, 언어장애 등 중증장애를 지니고 있어 노래 한 곡을 익히는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

재단 이사장인 이종호 명예회장은 합창단이 매년 공연을 할 때마다 단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설날이나 추석, 크리스마스 등은 물론 평상시에도 홀트일산복지타운을 찾아 단원들과 인근 식당에서 허물없는 시간을 보내며 응원대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이 명예회장의 지원과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각 기관의 마음이 더해져 국내외 내로라하는 정상 합창단만이 선다는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공연을 펼칠 수 있었다.

#### ◆JW아트 어워즈

미술 분야에 대한 후원 활동도 활발하다. 2011년부터 개최한 'J

W아트 어워즈'는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와 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4회 공모전까지는 젊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약업계 최초로 시도된 중형 미술 공모전을 운영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재능을 펼칠 수 없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15년부터는 장애인 작가들을 공모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탈바꿈했다. 그림에 많은 관심과 소질이 있지만 전문적인 지원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기업이 주최하는 장애인 대상 종합 미술 공모전은 'JW아트 어워즈'가 유일하다.

이밖에도 '탈북청소년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서초구내 탈북청소년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고,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복약 및 위생관리 습관 함양을 위해 '청소년 건강교실'을 진행하는 등 지역 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봉사도 진행 중이다.

#### ◆사회공헌 커뮤니티 신설

JW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사회공헌 커뮤니티(위원회)'



▲JW그룹이 '사회공헌 커뮤니티'를 신설하고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사진은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진행한 '김포시 소년소녀 가장 대상 자전거 나눔 행사' 모습. ▲JW중외제약이 2011년부터 'JW아트 어워즈'를 통해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를 신설하고, 기존 중외학술복지재단 중심으로 진행되던 공헌 활동을 보다 체계화해 그룹 차원의 활동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첫 나눔활동으로 '김포시 소년소녀 가장 대상 자전거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올해 입사한 JW중외제약, JW신약 등 JW그룹 103기 신입사원 40여명과 김포지역 소년소녀가장 30여명이 김포시 효원연수문화센터에 모여 함께 자전거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친밀감 형성을 위한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JW그룹은 '사회공헌 커뮤니티'를 통해 기존 중외학술복지재단 중심으로 진행되던 공헌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그룹 차원의 활동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창업자인 고성천 이기석 선생의 고향인 김포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고인이 평생 실천한 생명존중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계획이다. 문화공헌 사업뿐만 아니라 CEO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한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해외봉사활동과 주기적인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을 통해서 생명존중 이념을 실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